(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57 1982년2월2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February 25,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R 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외환은행에 이어 한국계 제2호

캐나다 한일은행 3월 개업

뱅쿠버중심 서부교민에 기여클듯

캐나다외환은행에 이어 한일은행이 오는 3월24일 뱅쿠버에서 시중은행 업무를 개시, 캐나다에 진출한 두번째의 한국계 은행이된다.

「캐나다 한일은행」으로 불리우는 이 은행의 자본금은 외환은행과 같은 5백만달러이며 뱅쿠버, 에드몬톤, 캘가리등서부지역 영업에 치중한다.

한일은행은 지난1월21일 연방정부로부터 차터드·뱅크(전국은행)로 인가 받았다.

토론토의 캐나다 외환은행(행장 최승락)은 작년10월6일 개업한 이후 자 산 3,400만달러, 교포 예금액 520만달러라는 큰 실적을 올렸다 (1월말현재).

이로서 외환은행과 한일은행은 동·서 지역 교민들의 자립과 경제발전을 위해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은행은 작년6월 한국에서는 최초로 민영화됐다. 이 은행은 자본금 9백억원이며 정부의 주식은 하나도 없이 대림산업등군소주주로만 구성됐다. 한국정부는 한일은행을 필두로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캐나다 한일은행의 초대 은행장으로는작년5월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한 김영모씨. 김행장은 홍콩지점장, 런던지점장등을 거친 외국통이다.

뱅쿠버시내 금융가 중심지에 자리한 한일은행은우선 뱅쿠버 일원의 6천교민들을 발판으로 캐나다중소기업등에 파고 들어가는것을 목표로 한다.

한일은행 토론토 사무소(소장 한철환)는 당분간사무소로 남아있으면서 지점으로서 승격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척시키고 있어 머지않아 캐나다 한일은행 토론토지점도 개업할 것으로 보인다.

한철환소장은 23일 뱅쿠버의 영업결과에 따라 토론토지점의 개업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뱅쿠버의 한일은행은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5명과 현지에서 채용된 5,6 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3월중 조흥은행도 토론토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진출한국은행은 금년중 3개로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진출 캐나다 은행은 현재 몬트리얼은행, 노바·스코시아 은행, 로열은행으로 이중 로열은행은 아직 사무소만 설치했다.

주소는—.

Hanil Bank Canada, Four Bentall Centre #2674 1055 Dunsmuir St. Vancouver, BC

전화 604-681-2266, 2271.

"정신적 후원에 기대 커"

이대사, 모국 올림픽후원에 감사

이규현 주 캐나다한국대사는 23일 "최근 토론토에서 88년 서울올림픽 후원단체를 결성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감사한다. 정부는 토론토 교민들로 부터 거액의 금전적 지원을 바라기보다는 정신적 후원에 더 큰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토론토 하버·캐슬· 힐튼호텔에서 열린 연방정부주관「환태평양국가와의 교역회의」(패시픽·림·컨퍼런스)에 참가차 토론토에 온 이대사는 이날밤 올림픽후원회 발기위원을 중심으로 한 15명의 교포인사들을 이상훈 총영사 관저로 초치, 의견을 나누었다.

이자리에서는 작년 9월의 트루도 수상 방한 기록영화도 상영됐다.

모국의 올림픽개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캐나다 교민의 성원을 조직화하기 위해 조직된 토론토 교민의 올림픽후원회 발기총회는 25일 하오7시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발기위원은 황대연(의사) 장순채(코리아타운 번영회장), 이병권(체육회장), 차선검(실업회장), 박인순(한인회장), 조영호(노년회장) 이창복(무역인협회회장)씨등 7명이다.

이대사는 토론토가 첫본보기가 되어 후원회를 결성한다면 캐나다 각지에서도 우리민족의 저력을 전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스포츠의 대제전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일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의 재일거류민단도 물심양면으로 크게 도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국 올림픽의 총경비는 22억8천260만달러(미화)이며 이 경비는 정부지원, 업체및 개인의 기증, 운동경기 수입등으로 충당된다.

이대사는 서울이 10만명 수용 주경기장등 대부분의 경기시설을 이미 갖추었고 지하철등 교통망확보도 활발히 진행되어 88년도까지는 자랑스런 올림픽주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사가 건축붐 계속

1월중 작년의 2배

캐나다 전체의 경제가침체상태에 있음에도 불구, 미시사가시의 건축붐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식을 줄 모르고 있다.

81년 1월중에만 3천만달러의 건축을 기록했던 미시사가시는 금년 1월중 두배인 6천만달러어치를 신축했다.

작년도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높은 건축붐을 기록한 곳은 알버타주 동부로 년간 66억달러였다.

금년 1월중 노스욕은 1천백만달러, 스카보로는 3백만달러를 기록했다.

미시사가시 근처 브램톤시도 높은 건축붐을 이룩, 작년에 2억3천4백만달러어치가 신축됐는데 브램톤시의 산업조정관 잭·터렐씨는 이같은 사실은 토론토 서부지역은 다른지역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미시사가시직원 코완씨에 따르면 1월중 건축된 주택 479채중 431채가 임대용 아파트라고 밝히면서 아파트건축이 크게 늘고있다고 말했다.

미시사가시의 아파트 임대가능율은 1%이내 내지 1.5%로 임대아파트 건축이 시급히 요청된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imited
각종주식·유가증권·선물(금·은)등
투 자 상 담
● 361-3428 강 상 욱

현존 외국은행 47개

도매업에 눈독, 중소기업에 유리

외환은행, 한일은행을 포함 캐나다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현재 47개이며 앞으로 55~60개선에서 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들은 모두 차터드뱅크(전국은행)으로 현존 캐나다 차터드은행 11개를 숫자적으로 훨씬 능가한다.

캐나다에서 외국계은행들이 영업을 시작한 것은 겨우 반년밖에 안된다. 작년에 외국은행의 국내영업을 인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기전까지 국내의 외국계은행들은 연방정부가 영업을 허가할 날을 기다리며 연락사무소로서 제한된 활동만 [illegible] 결산은행으로서의 업무는 수행못했다.

외국계은행이 얼마나 더 허가될 것이냐 하는 것은 캐나다은행법의 개정에 따른다. 은행법은 외국계 은행의 총자산을 기존 캐나다 은행자산의 8%가 넘지 못하게 규정했다. 작년10월 캐나다국내 은행자산을 약 2,500억달러로 추산할때 외국계은행의 총자산은 약 200억달러를 넘지 못하므로 외국계 은행수는 당분간 55~60개로 고정될것 같다.

이같은 숫자에 대해 매킨토시 캐나다은행협회 회장은 "내 생각은 10~15개 외국은행이면 족하다고 본다. 50~60개 은행들이 경쟁을 벌이면 자본금 규정 제한으로 이익은 보장될수 없다"고 말했다.

매킨토시회장은 "미국은 은행수가 15,000개나 되어 경쟁적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그것이적용되지 않는다. 외국계 은행들은 자본확대에 제약을 받으며 캐나다정부는 그들의 파산을 상관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점을 가졌다"고 말했다.

외국은행도 캐나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에 지불준비금을 예치해야 함으로 이자율을 덤핑할 수 없다.

외국계은행의 국내진출은 우리 교포등 수요자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연방정부는 외국 은행을 늘려 국내은행과 경쟁을붙이려 하는 반면 국내은행들은 소매지점망을 잠식당할 것을 우려 외국은행 증가를 반대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국계은행들의 소매업 진출에는 많은 장애가 따른다. 현재 허가를 받은 47개은행중 소매업을 시작한 은행은 10%미만이며 나머지는 토론토나 뱅쿠버등 큰도시에 몰려 도매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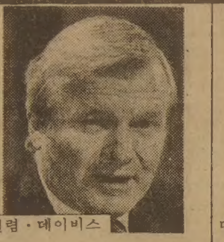
일부소매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은행들은 외환은행처럼 모은행과 관련된 이민자들을 주요고객으로 끌어들인다.

토론토 외환은행의 이수길전무는 "외국계은행들은 영업상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 요즘처럼 캐나다 달러가치가 계속 하락되면우리처럼 U.S.달러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많은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무역및기업체 금융과 정부의 환거래에 큰 기대를 거는 외국은행들은 특히 캐나다의 중소기업들을 목표로 대부경쟁을 벌인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2개정당 당수 경질을 계기로 살펴본 온타리오주 3개정당의 정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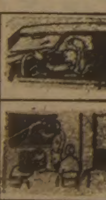
당 수	윌렴·데이비스 보수당 (P.C)	데이비드·피터슨 자유당 (Liberals)	밥·뢰 신민당 (NDP)
OHIP 의료보험료	주민에게서 보험료를 받으며 필요하면 인상한다.	점차 면제한다.	즉시 면제한다.
병원사용료	병원들은 특실 사용료를임의 지정, 사용자에 부과할 수 있다.	반 대	반 대
의사들의 치료비과외부과	인정한다.	의사들이 OHIP이 주는 돈보다 더 받으려면 환자에게서 전액을 받아라.	치료비과외 요구를 금지. 정부와 의사들과의 치료비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강권 발동.
불어도 공용어인가?	불 가	원칙에는 찬성하나 시행을 강요하지 않는다.	새 헌법에 관계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
교사 파업권	인 정	불인정	인 정
이자부담 지원	연방정부 책임이나 농부들에게는 약간 보조.	모기지 상환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차압을 6개월간 중단.	연방정부가 안도우면 주정부라도 도와야 한다.
야구장 맥주판매	반 대	찬 성	찬 성
영화검열	찬 성	영화의 성격을 분류, 표시할 뿐 검열제는 즉시 철폐.	자유당안에 찬성.
원자핵에너지	에너지공급상 절대 필요.	필요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	증설에는 반대.
자원회사의 주민소유	특정경우외에는 반대.	경우에 따라 용납되나 아직까지는 필요없었다.	천연자원은 모두 주민의것이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캄텍스 공제
※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상륙!
미연방정부 특허품

★다른 약으로 별 효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회사 제품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 쥬-스 : 위궤양·소화불량·장염·변비·당뇨병·고혈압·저혈압·풍으로 인한 신경마비·빈혈·담석증·뇨석증·관절염·신경통·월경통 천식·알레르기성체질·전신쇠약과 식욕부진, 기타 많은 좋은 효과 있음.
● 젤리(가정상비약) : 화상·외상·치질·입술 부르튼데·습진·여드름·무좀·벌레 물린데 두드러기·피부암·햇볕에 탄데·정맥류·알러지·대머리·잇몸앓이·부인과질환·동상·임신으로 배가 튼곳 등외.
● 힐 로숀 : 신경통·관절통·근육통·두통·타박상 발 삔데 등.
* 본 알로베라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4020 DUNDAS ST. W. TORONTO, ONT. M6S 4W6 CANADA
(416) 769-4347(B) 248-1362(H)
정효기(Hyo-Ki Chung)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공산서적 출판허용

한국정부, 검열정책 완화

(서울22일=연합)근 30년동안 맑시즘(공산주의) 내용이 실린이유로 남한에서 출판이 금지됐던 책이 지난주 발간되었다. 그밖에 같은이유로 금서조처당했던 책들도 내달초부터발간될 예정이다.

문화공보부는 19일 영국인 이시아 벌린이 쓴「칼·막스—그의생애와 환경」의 한역판 판매를 허락했다.

독일태생인 변증법적 유물론자인 칼·막스와 그의 사상을 다룬 이 책과 버나드·쇼피로저「소련의 공산당」의 한역판을 포함, 다수의 공산주의관계 서적들이 곧 전국서점에 선을보일예정이다.

이같은 서적들이 빛을보게된 이유는 문공부가 그동안의 검열기준을 완화한 때문이다. 문공부는 국가현행법을 위반하지않는 한도내에서 맑시즘과 공산주의 관계서적들의 한역및출판을 허락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문공부는 한반도가 분단된이래 이러한 서적판매를 억제및 금지시켜 왔다. 이번정책변화는 정부의 국가사회제도 자유화 조처의일환이며, 남한의 제도가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확신을 명백히 보인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여행중 워싱턴에서 나란히. 구자승·장지원 부부화가

구자승 장지원 부부화가

워싱턴서 각각 개인전

토론토 온타리오 미술대학(OCA) 유학중 인 구자승 (구상화)·장지원(추상화) 화가부부가 3월중 워싱턴 에서 각각 개인전을 연다.

이들 부부는 81년3월29일~4월4일 토론토에서 서양화 2인전을 가진바 있다. (<캐너더뉴스 81년3월21일자)

구씨는 3월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워싱턴의 Chery Chase화랑(5522 Connecticut Ave. Washing D. C.)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은력키산맥·미국 횡단 여행 스케치와 인물, 정물등「자스퍼로 가는 길」등 최근작40점이다.

구씨는 금년 토론토 전시회는 계획에 없고, 가을에 일시귀국, 서울서 귀국전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한편 부인 장지원여사는 3월21일~4월3일 워싱턴의 같은 화랑에서 「전설」외30점의 최근작 추상화들을가지고 개인전을 가진다.

디스크 카메라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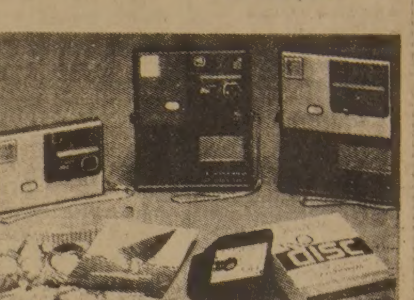
코닥社 5月부터 市販
포켓용 미니에 플래쉬連發

가정용 카메라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이스트맨 코닥회사는 3일 「디스크 카메라」라는 신형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카메라는 와이셔츠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두께가 얇은데 디스크(원형)모양의 필름이 샤타를 누를때마다 저절로 돌아가 카메라에 붙어있는 플래쉬는 1초만에 충전되어 실내에서도 계속해서 사진을 찍을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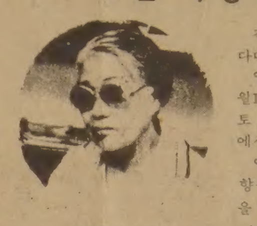
5월부터 시판이 시작될 이 신형 디스크 카메라는 가격이 최저 67달러95센트에서 최고 1백42달러 95센트에 불과하며 디스크형 필름(15장짜리)의 가격은 3달러19센트라고.



◆새로나온 디스크 카메라와 필름. 〈AP〉

대한부녀회 결성추진

4월 여성친목위해 창립총회


◇양혜신씨

작년부터 태동해온「캐나다대한부녀회(준비위원장 양혜신)의 창립총회가 4월10일(토) 하오5시 토론토 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열린다.

이땅 교포여성들의 자질향상과 친목도모, 복지증진을 위한 이 여성단체의 가입자격은 23세 이상의 기혼및 미혼인 한인여성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발기를 위해 힘써온 준비위원은 양혜신, 전영도·이근항·오경숙·김옥자·이상환씨등 6명이다.

준비위원장 양씨는 토론토 한인회 이사이며 지난 1월 한국노년회 회장단선거에 부회장으로 출마했었다.

82 서울국제박람회

9월2일부터 25일간

교포무역업체 참가바라

(서울)한국정부는 새 시대 무역입국의 구현과 제2의 경제도약을 다짐하기위한 사상최대규모의「82서울국제박람회」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내일의 번영을위한 광장」이란 슬로건의 이번국제박람회는 1982년9월24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25일간 개최된다.

교포무역업체들의 참가도 권장하는 82서울국제박람회는 80년대중반 5백억수출을 향하여 무역한국의 기반을 확고히하고 국제무역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박람회 장소는 서울에있는 한국종합전시장및 인근부지이며, 국제관은 약2만평, 국내관 약4만평등 총6만평의 대지에 세워진다.

정부 각부처와 경제단체들이 후원하고있는 서울국제박람회는 참가대상이 제조업체, 수출업체, 해운업체및 유관업체이며, 또는 특허및 아이디어 소지업체나 개인, 항공회사, 여행사등관광업체, 그리고 무역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업체, 단체 또는 개인이된다.

외채상환능력 보유

경제활동에 자유화 추구

(뉴욕22일=연합)22일전두환 대통령은 한국의 외채상환능력에 매우 확신적이며,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돈은 결코 헛되지 않을것이라고 재다짐했다.

뉴욕의 기업투자가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전대통령은 한국정부는 국가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승인이 절대로 필 요한 몇몇건만 제외하고 모든경제활동을 자유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압력과 같은외부적 요소에의해 국가경제 정책이 붕괴되지 않도록유의하고 있으며, "경제는 경제적 고려와 판단에 따 라 수행되어야 한다"는것이그의 움직일수 없는 확신 이라고 강조했다.

"손가락을 찾아라"

한국서 이색탐색작전

(서울22일=연합)실종된 손가락 2개의 긴급탐색작전이 지난주말 벌어져 화제를 모았다.

서울에서 160km남쪽에사는 농부 서달모(36)씨는20일하오 소먹이용풀과 밀짚을 낫으로 베다가 오른손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잘리었다.

서씨는 절단된 손가락을 천조각으로 붙들어 맨후병원으로 달려가 응급치료를 받았 고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의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다.

하오10시40분 전세택시로 서씨와함께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은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절단된 손가락을 담아둔 얼음상자를택시안에놓고 내렸다.

병원당국은 즉시 문제의 택시가 있음직한 하이웨이상의 기동순찰대와 접촉을 갖고 택시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얼마되지않아 하이웨이 기동순찰대는 문제의 택시를발견, 실종했던 손가락을 급히병원 수술실로 이송했다.

국립서울의대 정형외과 박철규교수에 의해 집도된 수술팀은 손가락이 절단된지 11시간 후에야 접합수술을 할수있었다.

박교수는 수술결과는 낙관적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2361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SO FAR SO GOOD.

「사업이 잘되십니까?」How's business?이렇게 물어왔을때 「아직은 좋습니다」를 미국인들은 So far so good.이라고 말한다.

「미 국생활이, 어떠세요?」How's your life in America? 혹은 「새로잡은 직장이 어떻습니까?」How's your new job? 하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좋다」고 말할때는 So far so good. 이라고 한다.

「사업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는 Things are looking up.같이 표현한다. 이때 look up은 「호전하다」「전망이 밝아 보인다」의 뜻이다.

만일 「그저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는때는 So-so를 사용하며 「그 영화 (파티, 음식) 가 어떠했나요?」 How was the movie(party, food)?라고 물어오는 경우도 「그저 그렇다」라고 할때는 So-so를 사용한다.

A : When did you come to the United States?
B : I came in September of '74.
A : What do you think of this country?
B : So far so good.
A : How's business?
B : For a while it was slow, but things are looking up.
A : 미국에 언제 오셨지요?
B : 74년 9월에 왔습니다.
A : 이나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B :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A : 사업이 어떠세요?
B : 얼마동안은 사업이 부진했지만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발음>United : t가 D로 유성화돼서 「유나이팃」이「유나이딧」으로, 다시 D가 우리말로 ㄷ에 가까운 발음으로 변해서 결국 「유나이럿」으로 변한다.

최초의 사랑이야기그린 映畫 「불을 찾아서」

「세계최초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의 장자크·아노드감독이 1천2백만달러를 들여 만든 「Quest for Fire」(불을 찾아서)」는 단순한 8만년전 인류역사드라마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있다.

얼마전 상영된 「케이브 맨」과 같이 고릴라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코메디도 아니고, 섹스심볼 라켈·웰치가 모피비키니차림으로 등장하는 영화도 아니다.

대사도 영어가 아닌 「원시어」로 엮어진다.

8만년전 사용되었을지도, 또는 사용되지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언어는 소설가 앤소니·버진스가 언어학적인 연구끝에 고안해낸 원시어이며, 여기에 인류학자인 데스몬드·모리스(The Naked Ape의 저자)가 원시인들의 제스처를 보충했다.

이야기는 인류가 지구상에 모습을 드러내기시작한 약8만년전, 험악한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수북한 털, 긴머리의 사람들은 집단결혼생활을 하던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당시 인류들의 주된활동이란 먹을것을 찾는일이었으며, 가장 큰 책임은 불이 꺼지지않도록 지키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인류들은 단지 벼락으로 불타는 나무에서 불을 얻거나, 아니면 다른 부락캠프의 불을 훔쳐오는것밖에는 불을 얻는 방법을 몰랐기때문이다.

이런 시대배경속에서 크로마뇽·어람부족은 네안델탈·와가부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많은 부족민과 중요한 불을 빼앗긴다.

당시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것이 바로 불이었는데, 그 불을 잃어버린 어람부족은 추위에 떨게된다.

만나게 되고, 그녀를 구조해주고, 그녀의 부족에게 체포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엮어져 나간다.

이미 「색깔에서의 흑과백」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아노드감독이나, 원시인의 언어를 만들어낸 데스몬드·모리스, 앤소니·버진스가 모두 박수를 받을만하지만, 가장 찬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배우들.

『이번 영화의 배우들은 우선 머리모양이 그들과 같아야했읍니다. 턱은 조그맣고 이마는 기울어져야 했지요. 분장에서도 이마를 튀어나오게는 할수있지만 깍아낼수는 없거든요』라고 「코리끼 인간」에서도 일했던 분장사 크리스·티커는 말한다.

들려준다.

따라서 이 영화의 출연진들은 아직 우리에게 낯선 배우들.

이들 에버렛·맥길, 래·돈정등은 진흙탕에서 얼어붙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곤했으며, 8만년전 마구 뛰어다니던 인류조상으로 분하기위해 가장 못생기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더러운, 그리고 마구 긁어대고 트림을 해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뿐아니라 이들은 한마디의 영어대사도 없이 그리고 얼굴표정의 변화도 없이 온몸으로 연기에 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뿌리에는 로맨틱한 주제가 있읍니다. 인류의 출현은 사랑의 출현

8만년전 人間의 생활實体…대사도 原始語로
가장 멍청하고 못생긴모습에 온몸으로 演技도

◇8만년전 인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불을 찾아서」

결국 그들중 3명의 투사가 불을 얻어오라는 명을 받고, 불을 찾아나선다.

불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이들은 사육제 때문에 포로로 잡혀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굉장한 힘을 가진 와가부인으로는 안보니오라는 레슬러를 고용했는데, 아노드감독은 그가 5백45파운드 체중이며 몬트리얼에서 머리카락으로 버스를 움직인 사람이라고

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경험할수있는 단하나의 동물입니다. 때문에 이 영화는 세계최초의 러브스토리이지요』라고 아노드감독은 말한다.

공고

캐나다 대한부인회 창립총회

한인 부녀자 여러분! 한인사회 수많은 단체가 있어도 부녀자들만의 친목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하여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들만의 단체는 없읍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만을 양육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만이 안고있는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여성의 권익을 우리 스스로가 힘을합해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의 민족혼을 지켜가기 위하여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참여해야 겠으며 우리자신의 권익 보호와 사회봉사에 앞장서야 겠읍니다.

이러한 취지로 아래와 같이 캐나다 대한부인회 창립총회를 갖고자 하오니 뜻을 같이하시는 여성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4월10일(토)오후5시
장 소 : 한인회관(20 Moblie Dr.)

시 간 : 오후5시~6시 식사
오후6시~7시 총회
오후7시~7시30분 무용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이 있겠읍니다.

1982년2월24일 —— 창립준비위원 일동

"올림픽에 태권도를…"

I.O.C. 캐나다위원 찬성

(토론토21일=연합)국제올림픽위원회(IOC)캐나다측 위원 제임스·워렐은 태권도가 88년 서울올림픽에 공인경기종목중 하나로 추가될 가능성이 많다고 21일 말했다.

"이 문제는 IOC실행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나는 개인적으로 태권도를 88년 서울올림픽 공인경기종목으로 포함하는데 찬성한다"고 워렐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올림픽정신으로 볼 때 북한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을 강력히 희망하며 IOC도 같은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또 서울올림픽 구성위원회의 임원들은 개개종목의 국제스포츠 연맹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것이좋으며, 그들의 경기시설에있어서 그들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술적 지원을 해 줄수 있다고 충고했다.

과거에 한국을 두번이나 방문한 워렐은 81년방한시 한국의 엄청나게 개선된스포츠시설에 놀랐다고 말했다.

학생, 교수 교환연수

알버타·중앙대 학술교류

에드먼튼의 알버타 대학교와 서울 중앙대학교가교수, 학생교류, 영어교육, 교수기술, 교육개발등에서 폭넓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81년부터 양대학교 교육협력 협정을 맺고, 양대학 학장급이 교환방문을하였으며, 82, 83년도에 중앙대학교에서 2명의 알버타대학생(경제개발, 한국학)을 알버타대학교에서는 11명의 중앙대학교 학생을받아줄 예정이다.

또한 한국교육 개발원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텔레비젼 제작팀이 알버타대학에서 기술연수를 받았고, 81, 82년도에 다시 5명이알버타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우주의 끝" 발견 미천문학자 주장

(라·서리나=칠레)남반구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 강원을 탐색하던 미국 천문학자가 우주의 끝을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광원, 즉 빛의근원은 보통 퀘이사(Quasars)라고 불리우며 이제까지 발견된 물체중 가장 먼곳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패드릭·오스머 박사는 망원경에 나타난것이 퀘이사가 아닌 캄캄한 어둠이었다고 말했다.

퀘이사는 굉장히 빠른속도로 바깥쪽으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항상 우주의 끝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생각돼 왔다. 오스머 박사가 퀘이사대신 어둠만을 보았다면 이것은 퀘이사가 발견되는 거리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 부근은 바로 우주의 끝이라는 주장이다.

유치(乳齒)의 건강 관리 4원칙

「안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본다」「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릴 때의 건강 상태나 버릇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젖니의 훌륭한 관리는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있어 갈 이니까 그냥 두어도 되겠지」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어린이의 치아는 음식을 씹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고 영구치가 들어설 자리를 마련해 주며, 말을 정상적으로 발음하게 한다. 또 외모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신 건강에도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 치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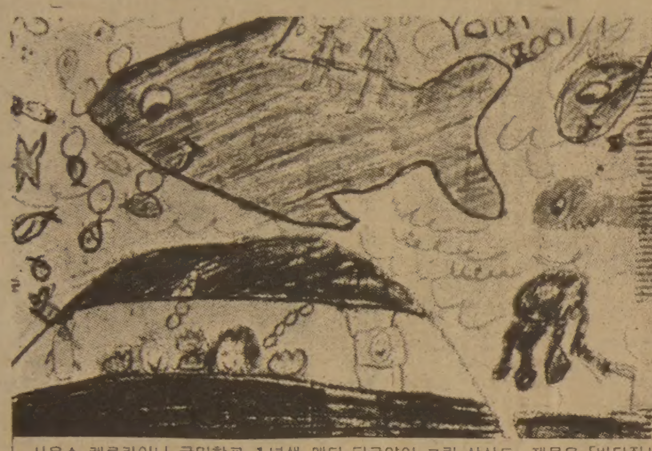
첫째, 충치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둘째, 칫솔법을 일찍부터 가르치고 습관화 시키자. 규칙적이고 바른 칫솔법은 충치와 잇몸의 병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매 식사후 3분 이내에 치아를 닦도록 습관화 시켜야 한다. 바른 칫솔법은 운동을 상하로 하게 되는데, 아랫니는 위로, 윗니는 아래로 하여 비로 쓸듯이 내려 닦으며, 씹는 면은 앞뒤로 닦는다.

셋째, 불소를 정기적으로 치아에 발라 주어 충치를 예방함이 좋다.

넷째, 정기적인 구강검사와 조기치료를 해야 한다. 6개월에 한번씩은 치과를 방문하여 눈으로 하는 검사와, 필요하면 X-선 검사등도 받으며 치아를 깨끗이 하는 법을 지도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국민교1년생 눈에 비친 서기2천년



사우스 캐로라이나 국민학교 1년생 맨디·딩글양이 그린 상상도—제목은 「바닷집」. 이 소녀는 "26살에 결혼하고, 그때 가면 바다밑에 살게될 것이며, 내 아이는 물고기를 타고 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공상을 폈다.

이 그림은 <스콜라스틱> 잡지가 모집한 「미래의 그림」 입선작의 하나이다.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34)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그는 이 물가에서 내 옆에 서 있었지요. 그는당신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것을 보고 있었으나 당신 카블루나이트(백인)는 그를 전혀 볼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때 엘라이투트나는 내가 당신의 총을 빌려오면 내가 편히 쉴 수 있으리라고 말했읍니다. 내 부친은 그이상 옛날이야기는 하지 않았어도. 그대신 현재에 살고있는 사람들과 땅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했지요. 그는 굶주렸던일과 그 큰고통이 왔을때 여자들과 아이들이 피를 토하며 죽던 일도 상기시켰으며 그는 나더러 당신을 보라고 명령했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호토야 잘 보아라. 이들 백인들도 우리들의 첫번째 여자의 아들들이며 그들은 우리가 그녀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들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속해있던 땅으로부터 멀리 보냈단다. 그 여자는 그옛날에 이들에게 잘못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의 공동의 어머니인그 여인의 잘못을 잊지않고또 그여인이 특히 우리들에게만 호의를 베풀었던 일도 잊지 못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돌아왔으며 그들의 기차로 이곳에 큰 고통과 피를 토하는 병을 실어왔단다. 그들은 우리들에게서 사슴을 감추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똑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시 찾으려고 왔단 말이다"

"그리고 너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죽음의 땅에 와있다. 리틀레이크에 남겨 두고 온 텐트에는 지금쯤 귀신이있을 뿐이고, 네가 돌아가도 너를 반겨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런지 모른다. 혹시 네가 알고 있는 낯익은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네가 사냥을 못하고 돌아갔을때 너를 반겨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날이 올것이다."

"내아들 오호토야, 그런 시절에 그 백인들이 있었니? 백인이 살아 있는 한 그들도 역시 이곳에 남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나면 그들은 어디로 갈것이냐?그들도 죽을 때가 올것이고, 마지막사람은 자기의 뼈를묻어줄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리때가 내아들의 죽은 시체를 떠맡게 되면 그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편히 쉴수 없게 될것이다."

부친 엘라이 투트나는그렇게 말했지요. 나는 그의 말의 진실성을 알았고, 당신의 총을 빌려서 그런 일이 생기기전에 끝장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총은 숨겨진 뒤였고 칼을 찾아보니 칼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밤이 되자 물가로 가서 부친의 혼이 나에게 죽음을 갖다주리라고 믿으면서 장송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기 전에 그는 나를 떠나 나만 살아 남았던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허전했으며 나는 이끼위로 넘어져 이 세상에 나 혼자 뿐이라는 생각으로 울고있었지요.」

19. 그의 아버지 시절

오호토가 죽기로 작정했던 다음날 우리는 전날저녁때의 캠프에서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해는 파란하늘높이 떠있었고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두어두었던 바위벼랑은 차츰 높은 산으로 바뀌었다. 남쪽과 서쪽에는 웅장한 산들이 솟아있었고 호수연변은 남쪽으로 커브를 그리고있어 우리가 이름도없는 그 호수의 끝에와 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멀리보이는 산들은 긴항해끝에 만난 부두처럼 정다웠다.

이제 육지는 낮은호수연변에서 급하게 높이 치솟아 올라갔다. 산엽으로 노를저어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사슴발자국이 널려있는 것을보고 어린애들처럼 기뻐했다.

산 사이에는 낮은 계곡밑으로 무성한 전나무숲이 깔려있어서 그날아침 우리들은 그저 불을피우는 재미로 호수언덕을 대여섯번씩 올라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것은 약간의 밀가루 뿐이었지만 큰 불옆에앉아 마냥 즐거웠고 모기들이 불속으로 날아들어 타죽는것을보고 즐거워 했다.

우리들이 불옆에서 이러고 있을때 갑자기 호수위로 짙은 회색의 안개가 일면서 우리가 지나온 황폐한 섬들을 가려버렸다. 짙은 안개는 2분여 계속되더니 거기에 완전한 무지개가 생겼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젖, 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로렉스전당 은하보석상

모든 여성에게 희소식

당 화장품 코너에서는 교민을 위한 피부관리 무료 강습을 아래와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1982년2월27일(토)정오12시~오후6시까지

*장소 : 은하보석상 화장품 코너

*강사 : 랑콤회사 근무

★랑콤화장품을 사실경우($30상당) $30에 해당하는 기프트가 있읍니다.

★미용상담 환영(12시~오후6시까지)

★시세이도화장품은 3월중 입하됩니다.

※랑콤, 시세이도의 특약점 은하보석, 화장품코너

620A BLOOR ST. W 전화 : 534—9977 534—7791

經協總額 일괄妥結키로

어제 韓日실무자 2次會談 끝내

"政治的 방식으로 解決"

3~5월內 外相會談 개최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 韓日양국은 19일 제2차 고위책임자간의 예비회담을통해 經濟협력妥結과 外相회담의 早期개최를위해 외교적노력을 倍加키로 합의하고 3차례의 회담일정을 모두마쳤다. 양측대표단은 이날하오 이틀간 3차례의 회담을 마친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은 經協문제와 관련, 상호입장과 사정에 대해 성의있는 설명과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이해를 深化시켰다』고 말하고 『예비회담에서 기대되었던 소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日 "額數결정時間필요"주장…異見은 남아

양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經協요청과의 관련등을중심으로 日側이 이미 요청한바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1월의 1차 예비회담에 이어 1개월만에 再開된 이번 2차 예비회담에서 절충을통해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이내로 양국 外相회담을 개최, 經協總額을 一括타결한다는 정치적 해결방식을 택한다는데 대체적인의견을 좁힌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韓日양국의 특수성을 고려, 경제협력문제는 어디까지나 총액제시형식으로 타결되어야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일본측은 對外경제협력문제는 외무성을 비롯한 大藏省·通産省·경제기획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이뤄져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더 필요한 자료와 설명은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양측간에 異見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이번회담에서 양국은 經協타결방식과 額數등에관해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못함에따라 각기회담결과를 토대로각각 협상전략을 구상, 마련해야할것으로 보이는데 이과정에서 3차실무회담을 열것인지 아니면 外相會談에서 정치적절충을 하게될것인지 여부를 결정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孔魯明수석 대표를비롯한 李祺鵬외무부경제국장, 李在春 東北亞1과장등 한국측 대표단은 회담을마친후 崔慶祿駐日대사와함께 이날하오 2시30분부터 15분간 사쿠라우찌(櫻內)일본외상을 예방, 60억달러 경제협력타결을 위한 韓日외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재확인했다.

이자리에서 사쿠라우찌외상은 『韓日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므로 양국간友好협력이 강화되어야하며 외相회담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끝나는대로 서울에서 조속히 韓日외상회담을 열어 현안인 經協문제를 타결하고싶다』고 말했다.

사쿠라우찌外相은 이날 양국外相회담의 早期개최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이회담이 5월중 서울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日側보도에 관해서는 부인했다고 한관계소식통은 전했다.

한국代表團 귀국

韓日外相회담개최를 위한 韓日고위실무회담에 참석했던 한국측대표단일행 7명은 19일하오8시40분 KAL편으로 귀국했다.

"統一確信일깨워야"

李文公, 反共聯정기총회서 强調

한국반공연맹(이사장 徐鍾喆)의 82년도 정기총회가 19일상오10시 자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李光杓문공부장관을 비롯 1천여명의 전국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장관은 이날 치사를통해 『한국반공연맹은 종래의 의미에서의 반공이라는 소극적방어적인 자세에서 탈피, 반공활동과 병행하여 국민들에게 통일의 확신과 신념을 위해우는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는것이 새시대에 요청되는 반공연맹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徐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공산주의는 지금 붕괴일로에있다』고 전제하고 『북한 공산집단이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전후세대에 대한 반공사상계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對共 경각심 해이를 경계하고 새 민주복지국가건설에 역군이 될것 ▲공산주의의 최후 발악적 침략등에대한 세계자유민의 결속 ▲북한동포 구출을 위해 신명을 바칠것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반공안보 유공자 姜汝鉉씨 (반공연맹 경남도지부장) 등 39명에게 정부가 주는 훈장과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金기배씨 (반공연맹釜山남부지부장) 등 40명에게 반공연맹표창이 있었다.

훈장을 받은 반공유공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石榴章) ▲姜汝鉉 (반공연 경남지부장) ▲金敬泰 (〃 경북홍보과장) ▲金重宋 (〃 전남지부장) ▲李鍾順 (〃 전북사무국장) ▲崔松植 (〃 교육훈련부장) ◇국민포장 ▲李敏圭 (반공연 蔚山사무국장) ▲賈在亨 (〃 瑞山지부장) ▲洪淳福 (〃 경기전사무국장) ▲金斗根 (〃 釜山鎭區지부장) ▲金榮 (〃 堯﨑지부장) ▲盧承均 (〃 서울城東 운영위원)

「點數알고 志願」등 補完

李文敎 知識人 體制內소외없게 노력

李奎浩문교장관은 19일 현행입시제도가운데▲종합대학이 모두 전기에 몰려있는 현상과▲자기의 점수를알고 지망하는 제도▲그리고 2개대를 동시에 지원하는것등 『제도적 약점은 빠른시일내에보완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KBS와의 대담프로에서 『일부 사람들이 현입시제도를 나무라고있지만 우리는 놓있었던눈치작전을 피하기위해서 옛날의입시지옥으로 되돌아갈수는 없다』고말했다. 李장관은 또 『학습의 효율성을높이고 각 교육단계에서 영재를 발굴하기위해 올해부터 교과별, 능력별 반편성을 권장하겠다』고 말하고 『학과별 특수학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출세만을목표로 교육받은 많은 지식인들이 생겨나면 결국 체제내에서 소외되는수도 늘어나 사회불안의 요인이되고, 이른바 교육받은 프롤레타리아로서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게될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들 기대수준만 높고 생산적인직업을위한 지식과기술을 익히지 못한 지식인들이없도록 진로교육에 역점을두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어 중고교생들의 두발및교복자율화는 인간교육의 차원을 높인 시책이며 우리는 중고교생들이 단정하고 검소하고 학생다움을 가짐이 몸에배게될때까지 그들의 머리형과복장에관해 관심을갖고 충고해야 될것이라고말했다.

國會對策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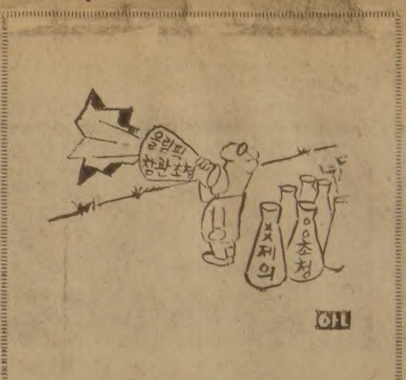
政府·民正정책회의

정부와 民正黨은 19일하오 民正黨舍에서 금년들어 두번째 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26일부터 열리는 제110회 임시국회대책등을 논의했다.

李載灐 民正黨 대표위원의 초청으로 열린 이날회의에서 정부측은 임시국회에서 밝힐 國政보고내용과 이번에 제출할 법안등에 관해 설명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議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는 또 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대비, 국회차원에서 對국민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방안에관해서도 논의했다.

社會漫評



담벼락도 그정도 말하면…

全斗煥 대통령은 19일 상·하오에걸쳐 청와대에서 法制處와 政務제2장관실로부터 각각 올해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盧泰愚政務제2장관과 吳在忠 政務조정관으로부터 88년올림픽및 86년아시안게임추진상황에관한 보고를받고 『體育部신설을 계기로 국민전체의 체육진흥에 특히 유의하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대비, 모든준비에 차질이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사진>

가벼운 秩序犯、前科者안되게

全대통령 指示

"優秀選手발굴 關心을"

全대통령은 또 『우수한선수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선수들의 生計를 포함한 관리에 대해 全社會的인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우수선수의 육성에 있어 경험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는 하나의 과학인만큼 보다중요한것은 실제훈련과 더불어 스포츠에 대한 理論的연구가 충실해야만 국제간의 경쟁에 있어 우리가 앞서갈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金永均법제처장과 관계국장3명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미 제정된法令에 따라 前科者時效가 類型別로 말소되게돼있지만, 이에 덧붙여 간단한 질서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벌과금만물리고 前科者취급이 안되도록 법령을 연구해 정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각종 認許可법령에 포함돼있는 발전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에서法制활동을 더욱 활발히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법령은 국민을위해 있는만큼 그 내용과 용어등을 알기쉽게표현해 국민이모두 이해할수있는法令제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우리 先祖들이 만든 옛法典을 연구,장점을따 현대법령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모든 법령이 우리국민성과 국민생활에 적합하게 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反共聯盟任員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19일하오 청와대에서 한국反共연맹의 徐鍾喆이사장등 임원21명을 접견하고 다과를 베풀며환담했다.

올림픽 7年計劃 곧確定

政務제2長官보고 底邊확대로 體育진흥 體系化

盧泰愚정무제2장관은 19일『올림픽7개년종합계획과 年次別 세부시행계획을 오는 7월31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盧장관은 이날하오 全斗煥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밝히고 국제스포츠外交를 강화, 공산권및 未修交國과의 체육교류를 촉진하고 국제경기 연맹단체와의협력을 긴밀히 하는한편 국제회의와 국제경기 유치에힘쓰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88올림픽업무를뒷받침하기위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사업이 본궤도에오르도록 지원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적극추진하겠다고 밝혔다.

盧장관은 『한국 체육의 획기적인 진흥을 위해 정부에 體育部신설과 함께 체육회를 비롯한 모든 경기가맹단체를 개편, 체계적으로 체육을 진흥하도록하고 체육인구의 底邊을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체육정책의기본방향에대해 盧장관은 장기적인 국민체육진흥책을강구하고 학교와軍、직장、지역사회체육을 강화하며 해외체육정보활동을 강화하는등의 방법으로 스포츠의 과학화와 체육행정관계법령및 제도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安保·反共·통일단체의 활성화방안을 수립、조직을 체계화하고 이들단체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는한편 회원들의 정예화를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盧장관은 이어 정부는 反共연맹、재향군인회、민족통일중앙협의회등 기간단체에 최소한의 재정지원을하고 총력안보중앙협의회의 市·道이하의 下部조직은 反共연맹에흡수하는한편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관계부처차관으로 실무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있다고 밝혔다.

法案、公聽會를 강화

法制處보고 年4회 國會제출

法制處는 국회에서의 立法활동이 일정한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법안내용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조정을 할수있도록「정부立法추진計劃제도」를 운용해 안에 정착시키기로 했다.

법제처는 또 特別法의 制定을 될수있는대로 억제하고 法令간에 불균형적으로 규정돼있는 法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金永均법제처장은 19일상오 全斗煥 대통령에게 금년도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정부는 법률안을 원칙적으로 4월과 6, 8, 10월등 年間 4회에 걸쳐 평균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예산과 관계없는 법률안은 될수 있는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수있게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또 현재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법률을 작성한 각 部處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정부의견의 통일성 유지에 어려운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해 법제처가 窓口기능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보고에따르면 또 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확보를위해 法令의 빈번한 개정을 止揚하고 108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議員제출법률안26건을 검토, 개혁의지에 反하는 법률, 人氣에 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법률,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나 黨政협의를통해 정부의사를 반영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특히 행정법규위반에대한 制裁를 합리화하기로하고 특히 영업법규위반에 대한 영업취소나 영업정지조치를 지양, 될수있는대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도록하고 刑事절차가 아닌 통고처분제를 選別的으로 확대, 위반행위로 인해 不當利得을본 만큼의 課徵金을 징수케하는 방향으로 法令化할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법과현실에거리가 생겨 부조리의 발생원인이되는 認許可의 기준등현실여건을 立法에 반영하고중요한 법령에 대해서는 공청회등 民意를 반영할수있는제도를 활용하는한편 전문가나 관련단체의 의견을들어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입법내용은 事前에 공개하는 제도의 도입을 연구할방침이다.

金正日 第1副主席 확실

北傀, 곧 名目的선거실시 준비

【東京18日=聯合】북괴는 이른바「주석」金日成의 후계자로 내정된 金의 아들 金正日이 부주석으로 선출될것이 확실시되는 그들 나름의소위 선거를 준비중에있다고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가 18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호에서 형식적인 의회에 해당하는북괴 최고인민회의가 선거일인 오는28일을 며칠앞두고 회기를 열어 金正日을 제1부주석으로 새로지명하는등 주석과부주석3명, 각료들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國有林양여않기로

內務委, 請願심사

국회내무위는 19일 請願심사小委(위원장 梁純植의원)를 열고「貸付國有林양여에 관한청원」(소개자 丁來赫의원등8명)을 심사한결과 우리나라의 國有林보유비율이 他國에비해 저조한데다장기적으로 볼때 개인에게 양여하는것이 이롭지못하다고 판단, 국유림을 양여치않기로 결론지었다.

이날회의는 그러나 현재各道知事의 認許可사항으로되어있는 立木벌채권을 市長郡守의 허가사항으로 이관하고 구비서류도 현재의30여가지에서 10가지로 줄이는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地平線

패션이라면 바로 파리를 생각하는게 우리네 상식이지만, 로마의 딱지가 붙은 넥타이를 사 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틀림없다. 패션의 본바닥이 파리만은 아니라는 사실때문이다. 유럽의 선진국중에서는 후진권에 드는 이탈리아지만 사람의 눈을 반하게하는 천재적인 미술의 감각만은 잘 알려진 얘기다. 특히 산업디자인에서 이탈리아의 명성을 덮을 나라는 없다.

▼세계자동차시장의 유행을 만들어내는곳은 바로 이탈리아북부의 공업도시 투린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자동차의 명문 피아트회사가 있는 곳이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자리잡고있는 곳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인회사다. 이름이 알려진 회사가 6개쯤, 이중에서 3대 디자인회사들이 세계자동차의 유행을 결정하고있다.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유행했던 우아한 유선형이나, 70년대이후의 모난 보디·라인이 모두 이탈리아의 자동차도시 투린에서 나왔다. 3대회사중에서 베르토네와 피닌파리나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체공장에서 특수층을위한 고급승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1천9백명에서 2천명까지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한해3천만달러(2백13억원)가넘는 판매고를 각각올리고 있다.

▼3대 디자인회사중에서 최근 혜성처럼치솟고있는 규기아로가 이끄는 이탈·디자인은 종업원 2백명의 순수한 디자인회사다. 올해 43세인 그는 일본의 니콘·카메라나 선글라스에서 라이터, 전자오르간, 전기미싱, 그리고 투린 거리의 쓰레기통, 가로등, 전차정류장까지 디자인 하고있다. 그는 작년에 1천6백만달러(1백14억원)의 매상고를 올리고있다.

▼규기아로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의 62%는 해외에서 번것이다. 세계최대의 자동차메이커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즈도 그의 신세를 질 작정이다. 아무리 값싸고 좋은 물건도 디자인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계산때문이다. 피닌파리나는 그의고급승용차가『아름다운 여인과도 같다』고 말하고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창조심을 자극한다. 불황때문에 모델을 6년만에 바꿔야된다면 나에겐 더욱 좋다』고 규기아로는 말하고 있다. 세계적 전기 기구 메이커인 일본의 소니나 서독의 브라운이 일어선 것도 디자인 때문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영국의 대처수상은 지난1월25일 산업디자인 전문가들을 모아 회의를 열기도했다. 오랜만에 나온 국산 승용차의 새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영국처럼 디자인혁명이 있어야겠다는 조바심을 갖게된다.

社告

올리베이라招請 바이올린獨奏會

神技 弦의魔術師 3월6일下午7시 世宗文化會館

◇레퍼터리
모차르트 바이얼린 소나타 K379
R·슈트라우스 바이얼린 소나타Op.18
베토벤 바이얼린 소나타 Op.12
마티논 소나티네 No.5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회원권 예매합니다
S석 10,000원
A석 7,000원
B석 5,000원
C석 3,000원
(문예진흥기금포함)

◇예매처
본사사업부 722-1472, 1575
대한음악사 776-0577
종로서적 722-2331
세고비아기타 724-6161
광생약국 362-7372
교보문고 725-6151
이태백안경 778-5103
세종문화회관 722-2721
삼익피아노 778-1117
중앙악기사 261-7900
롯데호텔(뉴스스탠드) 771-10(552)

한국일보社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KAWAI 피아노 인벤토리 대매출 기간 : 2월27일까지

⊙본사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특별무이자 할부판매 (6개월한도내)를 단행했읍니다.
⊙은행대출알선이(1년-3년) 가능합니다

UPRIGHT 피아노

802-1
$3,995(Reg), $3,395(Spec)

802-M
$3,995(Reg) $3,395(Spec)

KS-3F
$4,595(Reg) $3,900(Sp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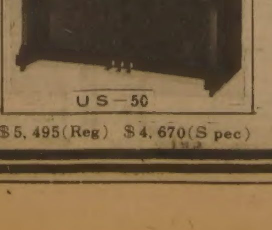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

KG-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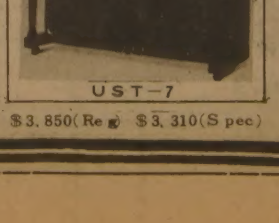
전자올갠

E-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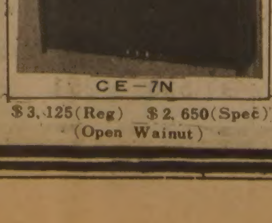
E-360



US-50
$5,495(Reg) $4,670(Spec)



UST-7
$3,850(Reg) $3,310(Spec)



CE-7N
$3,125(Reg) $2,650(Spec)
(Open Walnut)

GS-30

대표 윤 호 섭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한국戰爭-알려지지않은 이야기」秘話

아이크의「한국戰의 한국化」

"休戰不應땐 中國本土에 原爆투하"

消耗戰짜증 軍部서결정

네루통해 警告전달 6개월만에 調印

월남전이 장기화하자 전쟁의「越南化」를 추진했듯이 미국은 한국전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다각도로「한국전의 韓國化」를 모색했다。아이젠하워의 대통령당선으로 구체화된 이구상에 따라 존·포스터·덜레스국무장관이 인도에 급파되어 중공이 휴전에 응하지않으면 북한과 중공땅에 원자탄을 투하하겠다는 경고를 네루수상이 中共수뇌에 전달할것을 요청했다。네루는 한국전 발발에서 終戰까지 몇차례「幕後」를 장식했음이 드러났다。다음은 미국의 논픽션작가 조셉·굴든이 쓴「한국전비화」에서 밝혀진 휴전 성립 과정이다。【편집자註】

한국동란 종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드와이트·아이젠하워장군은 1952년 11월29일 한국전선을 방문、전황을 둘러봤다。

아이젠하워는 한국에 1주일간 머무르며 의회에서의 연설과 군대의 사열등 환영행사를 하자는 李承晩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했다。대신 아이크는 최전방만을 시찰하고 주한유엔군사령관 마크·클라크장군과 밴·플리트 8군사령관등 군사보좌관들과만 만났다。

李대통령과는 3일의 체한기간동안 두차례에 걸쳐 1시간 만났을뿐이다。

한국전선방문에서 아이크는 확전의 위험없이는 한국전을 결정적승리로 이끌수없다는 생각을 갖게되었다。그러나 그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아이크는 훗날 그의 비망록에서「우리는 이 소강상태의 전선에 영원히 남아있을수 없고 [illegible] 사상자만 내고있을수도 없다。낮은 고지에서 소규모 전투로는 이전쟁을 끝낼수 없다」고 기술했다。

아이크는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를 수락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존·포스터·덜레스 당시 국무장관의 견해에 동의했다。

한편 아이젠하워 도착직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전쟁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군을 16개사단에서 20개사단(64만명)으로 증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클라크장군은 동시에 원자폭탄의 사용과 자유중국군의 본토공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그러나 클라크장군은 아이크가 방한했을때 OPLAN 8-52로 명명된 이 작전계획을 토론할 기회를 갖지못했다。

클라크장군과 대통령당선자 아이크와의 대화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고 명예로운 휴전에만 집중되었다。

아이크는 본국으로 돌아온 뒤 그때는 야인이던 맥아더장군의 조언을 요청했다。

맥아더장군은 12월17일 아이크와 스탈린소련수상과의 美·蘇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장문의 메모를 전달했다。맥아더장군은 회담에서 소련측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철수하여 한국을 통일하는 것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맥아더장군은 소련이 이를 거부할때 대안으로 북한에 원폭을 투하하고 압록강국경지대에 방사선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크는 자유세계를 분노시키고 신의를 배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했다。

아이크가 대통령에 취임한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전을 광범위하게 재평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합참의 장성들과 국방성관리들은 새대통령의 의도가 한국전을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한국화」하여 미군의 역할을 축소시키라는 것으로 [illegible] 3월까지 20개 육군사단과 1개 해병사단으로 증강시키기로 했다。

이때 한국동란을 종전으로 이끌수있는 희망을 주는 두가지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

하나는 3월5일 소련수상 이오시프·스탈린의 사망이었다。아이크 대통령은 스탈린의 죽음은 평화의 길을 여는것이라고 직감했다。그는「소련의 새 지도층이 스탈린시대와 아무리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어도 죽은자의 전철을 맹종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다른사건은 미국이 전략·전술적으로 중요한 새핵병기를 보유하게 된것이다。1월초 미국과학자들은 뉴멕시코의 핵실험장에서 야포로 발사할수있는 핵탄두의 실험에 성공했다。

합참본부는 한국전이 발발한지 2년동안 논의해오던 전술핵무기의 개발로 [illegible] 원자탄투하를 포함한 중국본토와 만주에대한 공·해군작전을 권고했다。전략·전술핵무기까지 사용하는 이작전은「최대의 효과와 최소의 희생」을 주도록해야 한다고 합참은 건의했다。

국가안보회의(NSC)는 다음날인 5월20일 합참의 권고를 승인했다。NSC는 우연의 일치처럼 덜레스국무장관의 중동과 아시아순방 출발일을 택해 원폭권고를 승인했다。덜레스는 네루수상과의 회담에서 [illegible] 원폭을 투하하겠다는 경고를 전해주도록 요구했다。

덜레스는 또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주지시키고 북한지역에서 신무기사용을 주저하지 않을것임을 강력히 암시했다。

이와 동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만과 중공사이에 배치중인 제7함대의 작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또 중앙정보국(CIA)은 미군이 훈련한 자유중국게릴라들에게 본토공격을 강화하도록 허락했다。중공 관영新華社통신은「미제국주의자들이 지원하는 蔣介石의 개」들이 53년들어 2백회이상의 본토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분명히 새행정부는 적이 정전에서 빠져나올수 있는 길을 찾는데 주도권을 잡고 행동했다。그리고 그 호응은 오래지않아 나타났다。스탈린이 죽은 수주일후 신임소련수상 게오르기·말렌코프는 소련정부는 [illegible]

◇아이크 大統領 당선후 戰線시찰

대통령당선자 아이젠하워장군이 52년 12월한국을 방문, 최전선을 시찰하고있다。

3월28일 북괴 金日成과 중공군사령관 彭德懷는 병든 포로와 부상포로를 교환하자는 클라크장군의 제안을 수락하여 유엔군을 놀라게했다。周恩來가 3월30일 중공방송을 통해 최초의 포로교환을 기점으로 전쟁을 종식시키자고 말한것이다。2일후 소련외상 몰로토프는 周의 제안을「전적으로 공평한것」이라고 칭찬했다。협상은 재개됐으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미국은 군사적압력을 가했다。[illegible] 5월13일 평양 [illegible] 댐을 폭격 [illegible] 미국의 압력은 효력을 나타냈다。6월 [illegible] 7월27일 조인 [illegible]

美、엘살바도르 派兵안해

레이건會見 景氣회복自信·國防예산못깎아

【워싱턴18日AP·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은 18일 취임후 8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엘살바도르를 비롯, 세계어느지역에도 전투부대를 파견할 계획이 없으며 자신의 경제정책이 國內경기를 회복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중계된 TV회견에서 ▲中美문제▲중동문제▲폴란드사태▲소련의 對쿠바무기공급▲국내경제문제및 식량무기화정책등 국내외현안에 광범위하게 언급했다。

그는 정부군과 좌익게릴라간의 내전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고있는 엘살바도르문제에 언급, 미국은 엘살바도르 정부군을 지원하기위해 전투부대를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어떤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할것이냐는 질문에 대해『누군가 백악관에 폭탄을 투하해서 내가 냉정을 잃으면 혹시 모른다』고답변했다。그는 그러나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에대한 미국의 개입방법에 관해서는 이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손상시켜왔다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이 미국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회복시키고있는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시간에 구애받지는 않겠다』고답변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의회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있는 차기국방예산에 대해서도 美國의 국방력강화가 필수적조처로서 前회계연도 對比 18%증액규모를 삭감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 公報省건물 大破

테러犯

【다마스커스18日AP·AFP=聯合】시리아수도 다마스커스에서 18일정오쯤(현지시간) 한 테러범이 폭탄을 가득실은 트럭을 몰고 시리아공보성건물로 돌진, 폭탄을 터뜨리는바람에 12명의 공보성직원을포함, 적어도 40명이 부상하고 10층짜리 공보성건물이 대파됐다。

목격자들은 이 테러범이 신문가판원으로 가장, 공보성건물로 접근하다 경비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채 경비경찰의 총탄세례를 무릅쓰고 트럭을 돌진시켜 공보성건물 후면에 충돌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트럭에 실려있던 폭탄이 터졌다고말했다。

목격자들은 이 폭발사건으로 테러범도 갈갈이 찢긴채 사망했다고말했다。

다마스커스의 정치소식통들은 이 사건이 하마市 반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키니 다이애너妃

엘女王이 크게震怒

【런던18日AP=聯合】비키니차림으로 해변의산책을 즐기고 있는 다이애너 영국황태자비의 사진이 영국의 두 대중일간지에 게재되어 엘리자베스여왕이 진노하고 있다。

판매부수 4백만부인 영국의 최대의 일간지 선과 이의 경쟁지인 데일리·스타 (판매부수 1백50만)는 바하마군도의 엘류테러섬에서 10일예정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찰스황태자부부를 추적, 비키니차림의 다이애너 황태자비의 모습을 망원렌즈로잡아 18일자 1면에크게 게재했다。

◇해변의 英皇太子妃 2주일간의 휴가차 바하마에 온 다이애너가 그녀의 남편 찰즈황태자의 수상스키를 보면서 물속을 걷고있다。임신5개월인 다이애너는 나중에 찰즈황태자와 함께 수영을 즐겼다。【바하마17日UPI=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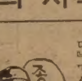
鄧小平健在、시아누크와 會談

【北京18日AP·UPI=聯合】중공당부주석 鄧小平은 18일 前캄보디아수석 노로돔·시아누크공을 만남으로써 5주간의 잠적끝에「정치 제1線」에재등장、그의 권력건재를 재확인했다。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鄧小平이 이날 北京인민대회당에서 시아누크공과 회담「현재의 관료체제간소화 정예화작업은 해결되어야하는 긴급과제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문제를 하나의 혁명으로 취급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는 이어『물론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라 행정구조상의혁명』이라고 밝힘으로써 관료체제 간소화작업이 숙청이 아니라는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메아리



終末의 시작

反共安保有功者 79명이 19일 政府褒賞과 韓國反共聯盟의 表彰을받았다。이처럼 큰 규모로 反共安保에 종사해온 人士들이 훈장이나 褒賞을받은것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이들가운데 39명은 政府가주는 勳章과 表彰을 받았는데 國民勳章 石榴章을받은 영광의 유공자도 5명이나된다。叙勳된 사람들의 공적을 보면 자기가 경영하는 病院의료진을 나도와 벽지에 동원하여 그곳서 의료혜택을받지못한채 살고있는 反共家族을 비롯하여 聯盟 조직요원들을 찾아 시술하였는가 하면 일반국민들의 反共精神교육을 위해 외진곳을 순회하다가 78년10월 機動弘報班의 차량사고로 지체불구자가 되었는가 하면、또 계속 지역주민의 반공사상계도에 나서 그동안 7백65회의 강연 (수강 연인원 48만2천8백여명)을 해내기도 하였다。또 道民의 誠金을 착실히 적립하여 反共會館과「어린이 반공전시관」등을 설치하기도 했고 북한의 노동당 元山시당위원장으로 있다가 공산집단에 항거하여 부하 8명을 이끌고 68년 9월 남으로 탈출해온 의거귀순자도 섞였다。그는 의거 직후부터 줄곧 자유대한의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공산주의자의 악랄한 생태를 낱낱이 폭로 규탄하였는데 그 강연횟수가 무려7천회、연청중수 5백40만명을 헤아렸다고하니 열정이 헤아려지고 남는다。

徐鐘喆 한국반공연맹이사장은 이들이 포상을 받은 금년도 聯盟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국제공산주의의 종말은 지금 붕괴 일로에 있음을 강조했다。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작년 취임초 기자회견에서『공산주의는 그 종말이 시작되고있다』고 선언한 일이 있다。

공산주의의 自然死가 언젠가 확실하다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이것이 끼치는 害毒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야 한다는것이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부여된 과업인것 같다。

더구나 北韓집단이 한반도의「共産化」란 허망한術策을 버릴때 비로소 南北關係의 정상화와 統一이 이루어지게되는 우리입장에선「反共」이란 과업이 갖는의미는 엄청난것이다。공산주의의 종말을 재촉해온 反共保有功者들의 그간의「공로」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社說

和合의 大回轉을 기약

—南北韓스포츠會談 꼭 實現돼야

겨레의 기대와 세계의 관심이 함께 모아진 88년서울올림픽은「和合의 祭典」이 될것이다。분단국 수도에서 열릴「세계의 平和祭」라는 뜻으로 脫政治의 그 이상은 높이 발휘되어져야 한다。

날카로운 대립과 분열、갈등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모든 세계인은 和合의 달성을 열망하고 있기때문에 그럴 것이다。

서울올림픽의 이상과 함께 대회 규모와 준비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올림픽조직위원회는 和合의 광장에 1백49개국 선수 1만여명을 포함, 임원·보도·운영요원등 3만4천여명이 참가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大役事의 준비에있어「黑字대회」의 결의가 단단함도 밝혔다。투자는 최소로、효과는 최대로가 한국적이며 생산적인 서울올림픽의 목표라는것이 盧泰愚 정무제2장관과 金溶植준비위원장의 설명이다。알뜰한 대회개최의 성공은 우리의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것이다。국민부담이 적은 이 黑字대회의 제의는 끝까지 지켜지길 당부해 둔다。

「和合의 祭典」인 서울올림픽은 폐쇄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도 참관의길을 활짝 열어놓았다。국회 올림픽特委서 정부는 북한에 남북스포츠회담을 제의할 방침을 밝혔다。서울올림픽의 광장은 북한과 공산권선수들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한동포에게도 개방한다는 역사적 제의인것이다。그를위한판문점大路도열어놓았다。굳이 제3국을통하지않고「우리땅」을 밟으며 서울로 올수있게 하기 위해서다。

올림픽정신은 새삼 강조할것 없이 정치、사상、이념의 개입을 배격한다。그러기에 순수한 스포츠교류 제의는 어떤 정치적이유를 달더라도 북한은 거부해서 안된다。우리는 남북분단의 역사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和解의 大回轉」이 있기를 절실히 원한다。

대한올림픽 위원회는 서울올림픽유치 결정이전에 이미 84년로스앤젤레스대회의 단일팀구성을 제기한바 있다。또 서울대회 유치 직후에도 거듭 북한에 체육교류를 촉구했었다。

북한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를 언제나 無應答으로 외면해왔다。순수한 스포츠교류로 서로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려는 우리노력은 北의 무성의로 아무런 前進을 보지 못했다。그렇지만 과거는 이제 과거로 덮어두자。

이번에야 말로 북한은 우리가 닦아놓은 和合의 길인「올림픽의 大路」로 걸어나와야 한다。판문점은 분단의 길목이 아닌 和解의 길목이되어야 한다。우리 세대가 서울올림픽을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세계의 祝祭를 가질수 있겠는가…。북한동포에게 이기회가 단절되어서는 안될일이다。

북한체육계는 우선 회담테이블에나와 우리와 얼굴을 마주 대하자。중공도 대만이 개최하는 세계여자 소프트볼대회에 참가키로 결정했다 한다。스포츠를 통한 和解의 물결은 피할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는것이 우리신념이다。

북한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열성은 꾸준하다。판문점통과허용、남북한 종목별 친선경기、비무장지대내 경기장마련등의 제의를 잇달아 내놓았다。북한은 정치선전이나 술책으로 우리의 善意와 熱意를 언제까지 물리칠수만은 없을것이다。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단일팀 구성 문제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임은 잘 알고 있다。문제를 풀어가는 길은 쌍방의「대화」뿐이라고 생각한다。마주 앉아 마음을 툭 털어 놓으면 해결의 실마리는 꼭 잡힐수 있다。

거듭 밝혀두지만 폐쇄와 정치적 여건으로 역사의 潮流를 막아 설수없다。북한이 다시 스포츠회담 제의에 아무런 성의를 안보인다면 민족의 노여움을 터뜨림은 물론 그옹졸함이 국제사회의 수치거리가 될것이다。스포츠를 통한「解氷의 기운」을 북한은 외면 말기 바란다。

우리科學·우리技術

—人材배양 研究혁신에 全力投球를

超大容量의 컴퓨터와 驚異의 生命工學등 날로 새로와지고 있는 科學技術時代에 그나마 뒤떨어지지 않고 生存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人的物的條件에 알맞는 과학기술진흥책을 강구 해야만 하겠다。

全斗煥 대통령은 과학기술처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기술혁신없이는 오늘처럼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과학진흥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과학기술처가 제시하고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80년대 情報化사회에 대비하여 국산컴퓨터의 質量的인 개발에 이바지할수있는 자극유인을 만들것이라한다。그를위해 公共기관에서의 국산컴퓨터 사용을 의무화함은물론 컴퓨터도입행정과 국산화시책을 연계시키고 대학및 대학원의 電算교육을 확충강화하며 高校生의 컴퓨터 교육 실시와 교육용 小型컴퓨터개발을 올 부터 하겠다는것이다。

동시에 금년의 중점적인 연구개발대상으로서 精密化學、VTR用 IC、機械自動化、重水爐用核燃料의 設計제작、저질탄활용기술등에 注力하며 특히 오는88年까지 年産2百톤규모의 核燃料加工공장을 건설키로하고 年內에 전담會社를 설립하려한다。새삼스럽게 原子力 宇宙여행 電算機 遺傳因子再結合을 쳐들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그 놀라운 진보발전에 관하여 모르는사람은 없다。

核폭발이나 核발전소는 이미 常識化하고있으며 멀지않아 高速增殖爐가 실용화하리라는 확신과 더불어 어쩌면 今世紀內에 核融合의 可能性이 손에 잡히게될는지도 모른다。

한때 과학연구기관이나 大單位行政管理기관에서만 사용되던 컴퓨터가 이제와서는 小型個人用컴퓨터로 발전해서 우리日常生活에파고들고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半導體 부문에서의 기술혁신은 정말로 눈부신것이 있다。이제는 小型 半導體칩하나에서 百萬單位의 超大型IC도 出現될前夜에 있다。뿐더러 새로운 生命體의 結合이라고 일컫는 遺傳因子의 結合轉換을 통한 새 生物體의 創出같은 기막히는 파노라마의 展開 또한 과학기술이 펼쳐보이는 可能性의 한 側面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날로 거듭되는 발전상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스스로의 힘으로 연구개발하고 새 附加價値의 創出로까지 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意外로 적이 과묻힌면이 적다는 사실 역시 부인할수 없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外國의 과학자나 연구기관이아니면 저들의 企業에서 하는것을 오히려 당연한일인듯 착각하고 우리는 그저 남들이 연구해내거나 만들어낸것을 모방應用하고 購買도입해서 사용하면족하다는따위 思考方式에 젖어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성 싶다。

그러나 오늘처럼 고도화한 과학기술시대에서는 남의것을모방 應用함에 있어서도 스스로의蓄積이없으면 흡수消化조차 불가능함은 말할것없고 그나마「부메랑」效果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先進國들이 새技術과尖端기술의 移轉을 기피하고있어 독자적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야말로 死活的인 意味를 갖게된다。

뿐더러 우리처럼 資源이나 에너지가 不足하고 環境公害를 두려워해야할 處地로서는 한층 더 과학기술혁신에 注力치 않을수가 없다。

제아무리 국제화時代라고하지만 과학기술만은 우리스스로의것으로 土着化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미 조금은 때늦은 느낌마저 없지않으나 정부가 그진흥에 力點을 두고있음은 수긍되는바 크다。

요컨대 다른부분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과학기술부문에서는 有能한人材를 키우고 이들로하여금 자기力量을 最大限발휘할수있도록 刺戟誘因이 긴요한만큼 단순한口號에 그칠것이 아니라 보다 유기적인 기술혁신계획으로 그 전진이 서둘러지기를 바랄뿐이다。

사람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할수있는 연구소기능이라든지、여기서얻어진成果를 生産에 이나 다른연구사업과연결시킬수있는 조정기구、또는 이를 보장할수있는 제도장치가 뒤따라야 할것으로본다。

政局往來

◆한해에 2회이상 개정法令97件

法制處는 지난해 동안 改正된 法令중 2회이상 改正된 法令수가 97件에 이르러 총改正法令9백88건의 10%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法令의 빈번한 개정을 止揚키로 다짐。법제처가 19일 82년도주요업무계획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회이상 개정된 法令은 ▲법률이 兵役法등 7건 ▲대통령令은 여권법시행령등 59건、총리令과 部令은 31건으로 그 원인은 현실여건의 분석、반영이 미흡했고 입법당시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만 汲汲、관련사항의 전반적인 검토에 소홀했기때문이었다고분석。

법제처관계자는『이같은 法令의 빈번한 改正으로 법의 존엄성이 저해되고 준법정신이 해이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를 개선키위해 관련기관간의 사전협조체제를 강화하는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말귀못알아듣고 무조건 비난만

民韓黨의 金珍培대변인이 19일『民正黨대표위원은 말귀를 제대로 못알아듣고 무조건 비난만하려고 덤벼든다』면서 자신의 쌀값논평과 관련한 金대변인의 비난에 반격。

그는『農政의 구조적모순이란 농약 농기구등은 30년간 값이 인상되어왔지만 쌀값만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으며 농민들이 파는 값과 소비자가 사먹는값에 큰차이가 있는 것은 유통구조의 잘못이란뜻』이라고 설명하면서『신문에는 정확하게 보도됐는데 왜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그는 또『秋穀收買價인상을 위해 民正黨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농민들은 잘알고 있을것』이라고 강조한뒤『그사람(金대변인)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니 다음번에 만나면 한마디 해주겠다』고。

"法令자주바꿔 遵嚴性저해 큰우려"

◆信賴받는 정치위해 앞장서야

李鍾贊民正黨총무는 19일 서울江南區 책임당원 교육식장에서『과거의 정당은 선거만 끝나면 국민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정당에 속아만 살아왔다는 철저한 不信을 사게됐다』면서『民正黨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적 욕구를 채워주고 신뢰받는 정치를 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李총무는 이날 치사에서『해방후 지금까지 4백여개의 정당들이 離合集散을 거듭했지만 民正黨과 같은 당원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泡沫정당으로 끝났으며 오래 집권한 自由黨과 共和黨은 어느 특정인과 운명을 같이하고 말았다』고 과거 政黨史를 지적했다。또『民正黨은 현지당원교육을 통해 국민속에 뿌리내리는 근대정당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

◆民韓黨도있고 他黨들도있는데

民韓黨 당직자들은 鄭宗澤정무제1장관이 靑瓦臺에 보고한 새해업무계획중의 일부 표현에 대해 심히 불쾌한 반응。

柳致松총재는 19일 鄭장관이「民正黨주도하에 政局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내용과 관련、『앞으로는 행정부를 제쳐놓고 民正黨과 싸워야할판』이라고 못마땅해 했고 柳漢烈사무총장은『民韓黨도 있고 他黨도 있는데 民正黨혼자서만 政局을 이끌겠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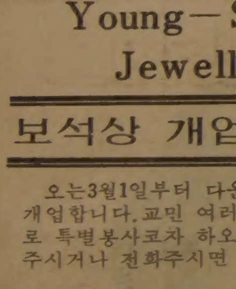
柳총장은 특히『소위 국회와 정부간의 架橋役을 맡았다는 정무장관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선택해야지「同伴者」云云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같은 값이면 상대방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말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하기도。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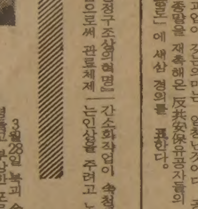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금·은 취급
* 품질보장
*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125 Yonge St.
(영×퀸)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렌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사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컴 년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샾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블론디 딘·영作

"어제밤 남편하고 외식하러 갔는데, 그이가 너무 많이 먹는바람에 메스꺼서 혼났어!"

"마늘가루를 뿌려 구운빵에다 대합조개 한 접시, 그리곤 스파게티와 고기완자를 시켜서 먹더라구!"

"그랬니, 얘… 그보다 더많이 청해서 먹는 사람도 많단다"

"설마 식욕추진제로 그렇진 않았겠지?!"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11>

國家再建最高會議

革命과업의 産室 2년7개월

國家再建最高會議—이것은 우리 憲政史上 최초로 혁명적인 방법에 의하여 설치된 超헌법적인 기구로서 입법、행정、사법의 3權을 장악한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이었다。

5·16군사혁명이란 이름의 無血쿠데타가 성공을 거둔 직후인 61년 5월19일부터 民政이양이되던 63년 12월17일까지 총9백42일、그러니까 2년7개월동안 그 권능을 행사했다。그 설치근거와 法的 지위는 18일 뒤인 6월6일에 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으로 마련되었고 및 달이 사흘뒤에 최고회의법도 제정되었다。말하자면 先設置 後立法의 과정을 겪은 잠정헌법의 私生兒였다。이것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의문스런 상황속에서 사전준비 없이 5·16거사를 결행했다는 저간의 사정을 단적으로 웅변하는 것이다。

擧事의 주역인 朴正熙소장은 거사당일인 5월16일 우선 5人의 군사혁명위원회를 즉흥적으로 구성、발표했었다。그 멤버는 張都暎육군참모총장을 의장으로 삼고 朴正熙소장、金東河예비역해병소장、宋贊鎬준장、尹泰日준장등 모두 장성급들이었다。이틀후인 18일 陸士생도들이 혁명지지示威를 벌이고 張勉민주당 내각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총사퇴를 결의함에 따라 거사가 성공단계로 접어들자 군사혁명위원회는 이날 하오 새로이 30명의 혁명위원과 2명의 고문을 선출했다。고문으로는 金弘壹예비역육군중장과 金東河예비역 해병소장이 추대되었다。

혁명위원 30명은 육군의 혁명주체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各軍의 단결을 과시하는 뜻으로 3軍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자동케이스로 뽑았다。

육군25명、해군1명、공군1명、해병대3명의 비율이었고 將星級19명과 領官級11명으로 조직되었다。거사주체세력인 육군에서는 계급별、期別로 안배하여 혁명위원을 뽑았고 5명을 배당받은 8기생이하의 영관급 장교들은 17일밤 70~80명이 陸本회의실에 모여 밤을 새워 숙의를 거듭한 끝에 李錫濟、吳致成、吉在號、玉昌鎬、朴圓彬씨를 선출했다。

젊은 장교들은 이때 불만을 터뜨렸다。『5명의 TO는 너무 적다。거사에 직접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정작 주체는 빠졌다』『지역적 안배가 고려되지 않았다』、엉뚱한 친구들이 북치고 장고친다…』는등의 반발이 거셌다。반대로 3명을할애받은 해병대의

◇5·16擧事 3일뒤인 61년5월19일 軍事革命위원회는 혁명위원과 顧問全員이 참석한가운데 1차모임을 갖고 革命委명칭을「國家再建最高會議」로 改稱했다。사진 ㊧로부터 朴正熙부의장 張都暎의장 金弘壹고문 金鍾五육군참모총장 金聖恩해병대사령관。

先設置·後立法의 急造기구

初期엔 모두拳銃차고 會議

朴의장 "솔직히 말해 通貨개혁은 失敗"

경우는 사양의미로 人選이순조로왔다。계급서열대로金東河、金潤根장군과鄭世雄대령을추천했다。거사에적극참여한 趙南哲중령、吳定根소령、崔龍官소령의、셋중에서하나를뽑으려는데 모두사양하기때문에 鄭대령이 漁夫之利를얻은셈이었다。혁명거사에 가담치않았으며 본인도까닭을모른는채 선임된케이스는 丁來赫소장과 韓信소장뿐이었다。整軍을지원하고 청렴한장군으로인정、朴소장이 직접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19일의 제1차 군사혁명위원회는「국가재건최고회의」로、혁명위원은 최고위원으로 그 명칭을 각각 바꾸어 의결했다。舊惡一掃、인간개조、국가재건등 혁명공약에 부응하여 범국민혁명으로 승화시키자면「혁명위원회」란 표현보다는「최고회의」가 낫다는 발상에서改名한 것이지만 북한에서 즐겨 쓰는「최고」란 어휘에 치를떠는 이북출신장교들이 異見을 달았다。특히 金潤根준장、朴致玉대령、文在駿대령등이 고함을 지르고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리하여 거사후 4일만에 발족된 최고회의 멤버30명의 명단은 다음과같거니와 그뒤 改閣、反혁명사건、各軍참모총장의 更迭등의 사유로 여러차례 개편이 있었다。

張都暎(육군중장·의장)朴正熙(육군소장·부의장)金鍾五(육군중장)朴林恒(〃)金信(공군중장)李成浩(해군중장)金聖恩(해병중장)丁來赫(육군소장)李周一(〃)韓信(〃)柳陽洙(〃)韓雄震(육군준장)崔周鍾(〃)金容珣(〃)蔡命新(〃)金振暐(〃)金潤根(해병준장)張坰淳(육군준장)宋贊鎬(육군준장)文在駿(육군대령)朴致玉(〃)朴基錫(〃)孫昌奎(〃)柳原植(〃)鄭世雄(해병대령)吳致成(육군대령)吉在號(육군중령)玉昌鎬(〃)朴圓彬(〃)李錫濟(〃)

혁명구호를「간첩침략의 분쇄」로 정한 최고회의는 이튿날인 5월20일 張都暎의장을 수반으로 하는 초대혁명내각이 구성됐다。

◀외무 金弘壹(예비역 육군중장)◀법무 高元增(육군준장)◀내무 韓信(육군소장)◀재무 白善鎭(육군소장)◀국방 張都暎(겸임)◀문교 文熙奭(해병대령)◀건설 朴基錫(육군대령)◀상공 丁來赫(육군소장)◀농림 張坰淳(육군준장)◀교통 金光玉(해군대령)◀보사 張德昇(공군준장)◀체신 裵德鎭(육군준장)◀공보 沈興善(육군소장)◀내각사무처장 金炳三(육군준장)。

朴正熙부의장은 7월9일 반혁명사건과 관련、張都暎의장을 비롯한 宋贊鎬 朴致玉 金東河 등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최고회의장에 선출되었고 尹대통령이 사임한 뒤로는 대통령권한대행까지 겸하여 명실상부한 최고통치권자가 되었다。

젊은 군인들의 패기와 박력은 快刀亂麻와도 같이 시원시원하게 혁명과업을 추진해 나가는듯 했으나 미숙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미숙함도 드러냈다。민주당 정부에서 물려받은 3·15부정선거 事犯과 4·19發砲책임자、정치깡패등을 혁명재판으로 응징하는 한편 부정축재자를 다스려 5백48억환을 還收하는등의 성과를 과시했다。그러나 5·16후 열흘만인 5월25일에 단행한 농어촌 高利債 정리사업은 최초의 실패작이었고 이듬해 6월10일의 통화개혁도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대표적인 失敗作중의 하나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이 사업은 민심을 수렴하려는 즉석 불고기식 시책이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정부는 진작부터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안을 마련、문제점을 연구 검토중에 있었다。

행정부를 접수한 군인들이 이 절묘한 법안을 입수하자 깊은 생각없이 그대로 시행됐다가 결국 중단 試行錯誤를 저지른것이다。고리채정리령이 발표되자 金基出씨(당시농림부 정무차관·국회의원)는 당시 혁명정부의 무작정한고리채 정리에 대해『서랍속에 있던 법안을그대로 써 먹다니、큰 일 났다』고걱정하기도했다。그때 신고된 고리채는 1백26만2천5백33건에 총5백37억4천9백97만환이었다。2백26만호 농가의 60%가 1천환 평균4만2천환의 고리채를 갖고 있는셈이었다。빚에 쪼들리는 농어민을 살리자던 것이 矯角殺牛格으로 농어촌경제의 마비상태、유통질서의 혼란및 농어민 상호간의 불신풍조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말았다。

최고회의는『5·16군사혁명 과업완수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했었다。서울太平路의사당(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새로 지은 경제기획원 청사로 옮긴 최고회의는 본회의장을 1층현관 좌측에 두었고 공휴일도 없이 일했다。일반인은 물론 기자들까지 출입이 통제된 구역이었으며 최고위원들은 권총을 찬채 회의에 출석했었다。그러나 6월6일 비상조치법을 의결할때 험악하고 긴박한 분위기를 걷고 난 뒤로는 권총을 풀어놓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관례가 생겼다。朴正熙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언제나 근엄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발언자는 몇몇 단골委員에 한정되다시피 했다。

비상조치법안은 거사전에 대강 구상은했었으되 草案이 마련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우선 최고회의를발족시키며 金鍾泌 李錫濟 柳原植 孫昌奎씨등이 초안을 잡고 俞鎭午、韓泰淵씨등 헌법학자가 감수한것으로알려졌었다。독일 나치의 授權法을 많이 참조했다는 비상조치법은 旣存헌법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의 효력만 정지시켰으며 의장、부의장有故時의 의장권한대행자를「最年少위원」으로 규정하는 등 특색을 보였었다。최연소자인 吳定根위원이 의장직을 대행한 사례가 꼭한번있었다。

최고위원은 계급에상관없이발언권、의결권등에 동등한 권능을누린셈이었다。

군사정부의 주요안건은 朴正熙의장과 金鍾泌씨가 사전에熟議하는것이 常例였으며 최고회의 본회의에 앞서 常任委員會에서 거의 요리되었다。常任委는 朴의장과 7개분과위원장으로구성된 縮小版최고회의다。

최고회의는 초기부터 업무가 시달되고 명령이 지시되었다。朴의장은 기밀의 保安에 무척 신경을 썼으나 모든최고위원의 입을 막기는 어려웠던 모양이다。朴의장은 몇번씩이나 회의석상에서『우리끼리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하루도 못돼서 내귀에 다시 들어오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힐책한 적이 있었다。

立法기능을 대행한 최고회의의 速記錄은 일체 國會에 인계되지 않았다。때문에 2년7개월동안 거기서 오고 간「말의 향연」은 당시主役들의 證言을 통하지않고는 그 正史를 찾기 힘들것 같다。

委員 철저保安에 "옷자락만 스쳐도 特種뉴스 나온다"

당시의 최고위원、특히 領官級젊은 장교들은 매우 순박했다。기자들은 최고위원의 옷소매만 스쳐도 특종기사를 뽑아내기가 일쑤였다。계단 모퉁이、문 앞마다 헌병보초가 섰는지라 첫째 접근이 어려웠다。그런 가운데서도 가능한 접근수단은 몇가지 있었다。

첫째는 복도의 음료수분수대에 엎드려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최고위원에게 따라 붙는 방법 둘째는 화장실을 서성거리다가 최고위원과 마주치는 방법 셋째는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에 올라타거나 자택방문을 하는 방법등이다。

만나기 어려워서 걱정이지 마주쳐서 몇마디 주고 받았다하면 최고위원 스스로도 경악할만한 뉴스가 이튿날 신문·방송에 실려나온다。어떤 기자는 당시 곰보실장집 담을 넘다가 개에게 물려 혼이 난 적도 있었다。제3공화국헌법、정당법、선거법등이 제정될 무렵 내무위원인 朴圓彬위원은「유도질문의 피해」를 많이 입은 당사자다。당시의 기사중 재미있는 표현은『시인도 부인도 아니함으로써 ○○일을 示唆했다』는 귀절이다。

이러한일들로 최고위원들 간에는 기자忌避症이 생기기도 했다。

최고회의는 62년12월8일 대변인(공보실장)을 겸직、元忠淵 대령 후임에 李厚洛예비역준장을 새로임명했다。HR(李실장略稱)·주미대사관무관을거쳐 민주당 정부의중앙정보위원장을역임했다。

李실장은 취임후 1년이 가까와 오는 62년11월7일 朴正熙의장의공식기자회견을 마련했다。최고회의 출입기자들은 그때 처음으로 최고회의본회의장에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곰보실장이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졌다。즉『6·10통화개혁의 成敗를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기자물음에 朴의장은『솔직히 말하거니와 통화개혁은 실패했읍니다』최고통치권자가 스스로의 失策을 自認하기에 이르렀으니 대변인의 補佐가 실로 이를데없이 불민했던 소치였다。

최고회의에 세칭「金洪吉라인」이 있었다。모두 陸士8기생인 金炯旭、洪鍾哲、吉在號씨를 말하며 강경파요 軍政연장파로 알려진 인물들이다。그중 文社委員인 洪鍾哲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말을 했었다。『通信社란 뭣하는 곳이야요? 거기서도 조그마한 신문을 박아낸답디다。나는 전화、무선기계를 고치는 곳인줄 알았는데…』그의 텁텁한 성품과 더불어 두고두고 회자되는 逸話 한토막이다。

海外演藝화제

돈·욕정에 남편殺害

보디 히트、관람 못할작품

美 가톨릭界서 "딱지"

○…국내에서도 상영중인 외화「보디히트」에 대해 美가톨릭계에서는「관람 못할 작품」의 딱지를 붙였다。

「보디히트」는 돈과 욕정에 눈이 먼 거부의 젊은 아내가 변호사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0년대부터「인류를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게 하기위해」영화마다 자체의 검열딱지를 붙여왔던 가톨릭계가 올해부터 태도를 다소 완화했는데「보디히트」가 마지막으로「관람못할 작품」의 불명예를 얻게된것。

새로 마련된 분류기준은「관람못할 작품」과「도덕적으로 타기할 작품」등 2개분류항을「0」(도덕적으로 저속한 작품)으로 한데 묶어놓았다。

가톨릭계가 나쁘게 본 작품은 흥행에 막대한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 최근 가톨릭계는『도덕적으로 유해한 작품이라도 좋은 작품일수는 있다』는 이해심을 갖게되었다。

이 분류기준에 따라 괴상한 이웃 때문에 평화로운 한가족이 곤경에 빠진다는 내용의 코미디영화「이웃」이「0」딱지를 받았다。

가상 3차세계大戰

視聽者 전쟁恐怖、政治家 책임警覺

도덕적「有害작품」判斷내려

○…美國이 蘇聯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기위해 對蘇곡물수출을 중단하자 蘇聯은 보복책으로 알래스카의 송유관을 파괴한다。이에 대해 美國의 반격전이 개시된다。美蘇양국 지도자들은 극비리에 정상회담을 열게되나 이 회담은 결렬되고 만다。蘇聯측의 순양함이 美軍의 잠수함을 격침시키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폭격기들이 출격을 개시、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된다。

이러한 가상 제3차세계대전은 美NBC·TV를통해지난1월31일과 2월1일 방영된「제3차 세계대전」의 내용이다。시청자들에겐 전쟁의 공포를 일깨웠고、정치지도자들에겐 그들의책임을 경각시켰다는점에서 화제와 관심을 모았다。

이TV영화에서 로크·허드숀이 美 대통령역을 맡았으며 브라이언·키드가 소련 지도자로 등장했다。

알리 生日파티참석

「케리·그란트」、영화 復歸說로 화제

○…지난66년「뛰지 말고 걸어라」를 마지막으로 스크린을떠난뒤 팬들의 극성스런 영화출연제의도 마다하던 멋장이 노신사 케리·그란트(78)가 최근 무하마드·알리의 40회 생일파티에 참석、다시 영화에 돌아올 뜻을 비쳐 주위를 놀라게했다。

그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작품은 살인과 음모가 뒤엉키는 모스크바의첩보전을 그린 마틴·크루즈·스미드의 베스트셀러「고르키 공원」。그란트는 각본만 마음에 들면 영화에 출연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 영화의 주역으로는 더스틴·호프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監督賞후보에 5명

○…「오스카상의 전주곡」이라 불리는 美감독조합(DGA)의 81년도 최우수감독상후보에 휴·허드슨(불의 전차)루이·말(어틀랜틱 시티)스티븐·스필버그(잃어버린 성체의 추적자들)와 마크·라이델(황금연못위에서)및 워렌·비티(공산주의자들)등 5명이 지명됐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3월13일발표되는데 DGA가 지난 34년간 최우수감독으로선정한 감독중 오스카상과 빗나간것은 단2번뿐이어서 누가 DGA감독상을 받게 될것인지 관심거리다。빗나간 경우는 지난68년 DGA가 앤터니·하비(겨울사자)를지명했을 때 오스카는 캐럴·리드(올리버)를、72년에는DGA의 프랜시스·코플라(현대목시록)대신 오스카는 보브·포시(카바레)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DGA와 오스카가 모두 로버트·레드퍼드(보통사람들)를 최우수감독으로 뽑았었다。DGA는 6천여명의 회원이 최우수감독을 선발한다。

「로렌」별거설 부인

○…최근 별거설이 나돌고 있는 프랑스 여배우 소피아·로렌은 그러한 소문이 전혀 근거없는것이라고극구부인。

현재 47세인 로렌은 남편 카를로·폰티와 원만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해명。

◇女優바르도 동물保護호소

왕년의 섹스심벌인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바르도가 TV스페셜 프로에 출연、애완용 개와 고양이를 길에 버리는 파리장들에게 동물보호를호소했다。47세가 되어서도 섬뜩한 매력을 잃지않은 바르도는 요즘 45마리의 동물들과 살고 있는데 그의동물가족엔 개、고양이는 물론거북이、오리、당나귀까지끼어있다고。【伊】

「선구자」作曲者 趙斗南翁

6년째 외로운 闘病생활

「一松亭 푸른솔은 늙어늙어 갔어도…」민족의 가곡으로 널리 애송되고 있는「선구자」의 작곡가 趙斗南씨(71·慶南馬山市西城洞삼익아파트)가 6년째 외로운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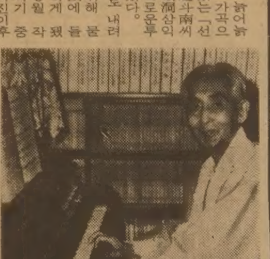
1·4후퇴때 南으로 내려온뒤 위장치료를 위해 물맑고 공기좋다는 馬山에 들렀다가 그대로 정착하게 됐던 趙씨는 지난 77년3월 작곡활동을하던중 갑자기 중풍증세를 일으켜 쓰러진이후 지금까지 부인 金敏惠여사(71)와 단둘이서 음악에의 추억과 집념을 버리지 못한채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부인金여사와 함께 모두平壤출신인 趙씨는 22세때인 지난 1932년10월 말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 이국땅北滿洲로 건너가 牧丹川西長安街 싸구려 여관방에서 청년기를 보냈는데 이때 우연한 기회에「선구자」를 작곡했다。

당시 신인작곡가 연령또래의 尹海榮이라는 독립투사가 한밤중에 갑자기 그의 여관방을 찾아와「선구자」의 가사를 던진후 작곡을 부탁하고 그대로 사라졌다는것。

그날밤 趙씨는 당시 北滿洲를 휩쓸던 독립투사들이 넘던 閒島 一松亭 龍井고개、그들의 땀냄새가 서린 海蘭江모래톱、밤마다 망국의 한을 달래듯 울려주던 龍珠寺종소리를 회상하며 모든 힘을 기울여 작곡을 끝낸 것이다。이때 만들어진 노래의 제목은「선구자」가 아닌「龍井의 노래」。해방이후「선구자」로 곡명이 바뀌었다。

馬山정착이후 趙씨는 그동안 많은예술인과 교우하면서「제비」「그리움」「접동새」「산촌」등 2백여곡의 주옥같은 가곡을 비롯「에밀레」종등 오페레타、환상곡、피아노협주곡등 활발한 작곡활동을했고 테너 嚴正幸씨등 수많은 문하생을 길러내기도했다。【馬山=鄭】



◇불편한 몸으로 피아노앞에 앉아「선구자」외 작곡당시를 회상하는 趙斗南씨。

가톨릭 가요대상의 受賞金50만원 기탁

「예시인의 노래」로 제1회가톨릭가요대상(작곡부문)을 수상한 작곡가 朴賢俊씨가 상금50만원을 위로작가들의 모임인 한국가요반세기작가동지회에 기탁했다。

멜러디 메이커選定 1위 「타운·콜드」

★…지난주 英國의 베스트셀러 싱글 차트(멜러디메이커선정)의 톱을차지한 뉴웨이브 밴드인 잼의 타운·콜드·멜리스가 이번주에도 톱의 자리를 지키고있으며 2위였던 스트랭글러스의 골든브라운도 2위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지난주 14위였던 타이트·피트의 The lion…와16위였던 대릴·홀&존·오츠의 "can't"가 각각 껑충뛰어 3위와 6위에 오른는등 이번주 톱 팝에 새로 랭크된 곡은 3곡이다。【AP】

美 컨트리뮤직만 放映 내시빌 네트웤誕生

★…미국에 컨트리 뮤직만 방영하는 내시빌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케이블 TV의 내시빌 네트워크는 오는83년 상반기중에 첫방영을 목표로 준비중인데 처음에는 하루 12시간 노래와 버라이어티쇼를 내보낼 계획。그중엔 90분짜리 생방송인「내시빌·투나이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댈라스의찰렌·틸튼 歌手조니·리와結婚

★…인기 TV시리즈「댈라스」에서 루시·유잉역을 맡아 인기를 얻고있는 美여배우 찰렌·틸튼이 컨트리싱어 조니·리와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결혼했다。

22세의 틸튼은「댈라스」출연으로 주당 3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리(36)는 항상 검정색 셔츠와 핑크빛 타이를 매고 다니는 개성있는 가수이다。

"인플레를 이깁시다"

— 경기가 작년다르고, 올해 다르지 않습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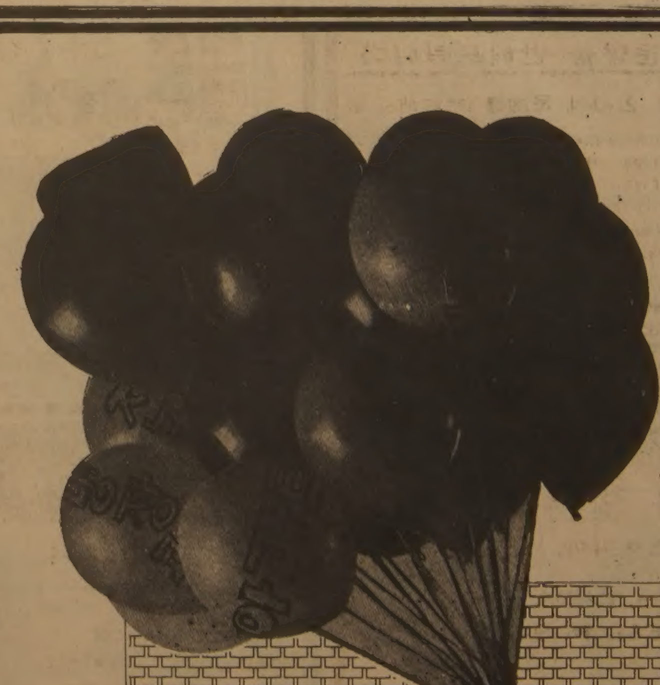
●불잡을 수 없는 어려운 경제!

●날이 갈수록 늘어만가는 지출!

경기가 나빨수록 사업체의 성공은
「여하히 광고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광고는 업체 처분시 권리금과도 큰 관계가 있읍니다.)

저희 한국일보광고부는 사업하시는 여러분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읍니다.

— 한국일보 광고부 전화 533-2361 —



學事懲戒 1학년에 集中

各大學、要件강화로 예년의 3~5배

사실상 「卒業정원」 변칙운영
성적異議신청·教授에 하소연도

서울大、高麗大、延世大등 전국 대부분의 國·私立 대학들이 「학사징계」라는 방법으로 「졸업정원제」를 변칙운용하고있다。졸업정원제의 실시와 함께 30%중도 수료처분의 부담을 안게된 각대학들이 지난 81학년도 1·2학기동안 졸업정원제의 첫적용대상자인 1학년생들에게 집중적인 학사징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졸업정원제의 목적을 달성하려하고 있는것。그러나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자의 양산은 졸업정원제에 의한 학년별 수료자와는 그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졸업정원제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징계당사자와 학부모들의 불만이다。

10%는 반드시 懲戒學點 받기도
「졸업 정원」 未達사태 올까 우려

또 대학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현재와 같은 무더기징계를 계속할경우 일부학교에서는 졸업정원 미달사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학사징계를 좀더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것이라고 희망했다。학사징계제는 학칙에 규정된 기준학점을 따내지 못하면 제명·근신·경고등의 처벌을 내리는것으로 졸업정원제 실시와 함께 갑자기 그요건이 강화됐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통해 예년보다 최고9배까지 징계자수를 늘리고있는 것이다。

서울大의 경우지난해 1학기 9백5명, 2학기 7백61명등 1년동안 모두 1천6백66명이 학사징계를 받았고 이중 1학년이 1천1백64명(제명 1백58명 포함)으로 전체의 69·9%에 달했다。

그런데 서울大 1학년생은 모두5천2백89명이다。

현재 1학년제명자들은 대부분 「배정입학」「요령입학」자 또는 등외계특별전형을거쳐 입학한 학생들로 알려져있다。

高麗大도 지난한햇동안 1학기에 6백96명, 2학기 4백70명등 모두 1천1백66명을 학사징계했는데 이는 지난80학년도 징계자 6백71명의 2배에 가까운 숫자。

이밖에 釜山大 1천7백84명, 慶北大 6백52명(2학기), 漢陽大 7백13명(2학기), 全南大 1백48명(2학기 제적)등 각대학의 학사징계자가 예년의 3~5배에 달하며 이가운데 1학년이 60~80%를 차지하고 있다。이에앞서 서울大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난해 1학기중에 졸업정원제와 학원대책을 위한 학사관리강화방침에 따라 학칙을 개혁, 1학년학생부터 적용해왔다。

서울大는 종래 평점4·3만점에 1·7이하는 경고, 1·0이하는 근신, 연속3회 징계자는 제명처분하던것을 지난해6월 ▲경고2·0이하 ▲근신1·3이하 ▲제명은 근신2회, 경고와 근신 각각1회 또는 연속2회경고나 통산 3회이상 경고로 기준을 강화했다。

성적처리에 있어서도 강제분포제(상대평가제)를 실시, 각 과목당 수강학생의 20%는 A(4·3~3·7), 30%는 B(3·7~2·7), 40%는 C(2·7~1·7)를 주되 나머지 10%는 C이하를 주도록해 10%는 반드시 징계기준학점을 받도록했다。

때문에 징계를받은 1학년가운데 제명을면한 1천여명의 학생도 앞으로 남은 6학기(9년) 동안 1회만 더징계를받으면 제적될 위험을안고있는것。

高麗大도 지난해6월 학칙을 개정, 4·5만점에 1·75이하는 학사경고를, 3회받으면 출교(黜校)처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漢陽大도 학사경고 3회면 제적, 2회면 유급조항을 신설했고 崇田大도 징계기준학점을 평점4·5만점에 1·7에서 1·75로 올리는한편 제적에 필요한 경고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였다。

이같이 학사징계가 제2의 입시관문으로 등장하자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의 신청을하고 교담당국에 내는등 긴장하고 있다。서울大의 경우 예년의 2배가 넘는 1백여명이 이의신청을 하는가하면 해당교수를 찾아가 하소연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서울大 한관계자는 입학때 대량 미달사태를 빚은 서울大는 현 1학년의 경우 제명자 1백53명을 빼면 졸업정원초과인원이 불과 2·8%인 1백16명밖에 되지않는다고 말하고 『이대로 가다간 졸업정원을 채우기도 힘들것』이라고 우려했다。【金宗來기자】

학생讀書、성적反映
문교부 初中高에 개인별카드 비치

문교부는 19일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방안으로 초·중·고교생의 개인별독서카드를 학교에비치시키고 독서의 양과능력을 평가, 각교과목성적산출에 반영시키기로했다。

문교부는 이를위해 독서카드에 나타난 독서량과 함께 독후감쓰기, 백일장, 각종 작문과제를 수시로 부과하고 그 결과를 각급학교에 설치된 독서지도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에따라 평가, 반영비율을 정해 실시해나가기로했다。

문교부가 이날 확정한 「학교독서생활화방안」에 따르면 이밖에 정규교과시간과 특활시간의 일부를 독서시간으로 할애, 각교과목과 관련된 광범위한 독서지도를 실시하고 각학년별로 필독, 장려도서의 목록을 선정, 이를 학교도서관에 별도 비치하여 독서지도교사들에대한 재교육을 강화키로했다。

문교부는 또 ▲학교 도서관의 연중개방과 개관시간 연장 ▲관련 사회단체의 각종 독서행사및 시상 ▲가정문고 설치권장, ▲학급문고 확충등 시책을 과감하게 추진키로했다。한편 문교부는 학교독서활동을 촉진하는 기구로 문교부내에 독서지도위원회를 설치운영중인데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와 각급학교에도 독서지도위원회를 설치, 이들 기구의 상호교류를 통해 독서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랑아수용소 院生죽여 暗葬
탈출企圖 10代에 몰매…農場에
木浦동명원 總務등 2명拘束

【木浦=聯】부랑아수용소의 40대총무가 탈출을기도한 10대원생을 다른원생과 합세、몰매를때려 숨지게한후 암매장한사실이 뒤늦게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전남목포시 대성2동 부랑아수용시설인 동명원(원장 김춘식·51) 총무 박용철씨(46)와 원생 서모군(19)등 2명을 폭행치사및 시체유기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군은 지난1월25일 하오 7시30분께 원생 주갑철군(12)이 동명원을 탈출하려는것을 발견, 함께 몰매를 가해 숨지게한후 시체를 청제캐비닛속에넣어 하룻동안 숨겨두었다가 다음날 하오1시께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에 있는 동명원농장에 암매장했다는 것。

특히 총무 박씨는 주군을 숨지게한후 다음날 상오10시께 원생 김춘호군(22)등 2명에게 현금1천원을 주면서 버스를 태워 농장의암매장한 장소에 80㎝의구덩이를 파놓게한뒤 구속된원생 서모군과함께 시체를 찬장속에 넣어 구들장 10개등으로 이삿짐으로 위장, 용달차편으로 가 암매장했다。

朴씨는 또 시체를 암매장한후 주군의 살해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주군이 그날 동명원을 탈출한것처럼 목포시에 허위신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동명원에서 심한매질등 학대를 견디다못해 19일 탈출한 원생 朴모군(17)이 목포경찰서 상하과

동명원은 지난72년7월27일 부랑아 보호시설로 인가를 얻은후 현재까지 61명의 원생들을 수용해오면서 도비와 시비를 연간각각1천만원씩 모두 2천만원과 원생1인당 하루부식비 2백92원, 양곡 5홉70그램씩을 보조받아 운영해왔다。

◇우수 (雨水) 인 19일 전국에는 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촉촉히 내렸다。

전국에 가랑비 촉촉
봄 재촉
어제 雨水…큰추위없어

19일은 우수(雨水)。겨우내 얼어붙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이날 우리나라의날씨는전국에걸쳐 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내렸으며 올겨울들어 처음으로 전국이 영상권에들어 봄이 다가온것을 느끼게 했다。

중앙기상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상오부터 비가내려 겨울가뭄으로 메말랐던대지에 부분해갈을시켰는데 주말인 20일에는 다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개고 기온은 아침최저가 서울지방은 영상2도, 중부지방은 영상1~4도의 분포가 될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번비는 중부지방에서는1~5㎜가량 내리는데 그쳤지만 그동안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던 영·호남일대에서는 10㎜이상이 내려 부분해갈이 됐으며 남부지방에는 10~15㎜의 비가 19일중으로 더내릴것 같다는것。

乙類농지세 申告制로
땅값 오른곳만 課標引上、내린곳은 引下

내무부는 19일 일부지방세 과세방법을 변경, 현재인정과세를 하고있는 을류농지세(소채,과일,약초등 특용작물에부과하는세금)를 전면신고제도 바꾸기로했다。이같은신고제는 경작자가 소득내용을 신고하면 일선관서에서 파악한 기준치와의 차이가 5%이내 일때에는 신고된 소득액을 과표로 삼기로 한 것。

경작자의신고내용은 작물별경작면적및 수확량,소득액등이며 납기(매년8월16일~30일, 12월16일~31일) 20일전까지 마을또는 조합단위로 신고한다。

내무부는 또 재산세등 주요지방세의 과세기준이되는 토지과표인상률도 신설 지목변경등으로 땅값이 오른 지역만 토지과표를 인상하고 땅값이 내린 지역은 인하조정 주민부담을 줄이도록 했다。또 인구 20만이상인 시(市)급 이상도시지역의 행정민원실에 지방세상담실을 설치, 납세안내서및 고지서등을 비치하여 지방세관계상담에 응하도록 했다。이상담실은 시(市)급은 오는4월말까지, 기타시 군은 연말까지 설치하며 세무실무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과세예고제도 실시, 재산및 농지세등의 과세표준액 결정, 신규과세대상, 세율변경, 재해로인한 지방세감면방법등을 공람시키고 개별적인경우는 납세고지서 발부 10일전까지 개별통지토록했다。

姦通한 有夫女 협박
警察이 강제로 醜行

【順天=聯】光州지검 順天지청 金鍾근검사는 18일 유부녀의 약점을 이용,욕을보인 남편으로부터 금품과향응을 받은 麗水경찰서 忠武파출소 金學坤순경(31)을 강간및 뇌물수수혐의로구속했다。

검찰에따르면 金순경은 지난해 12월19일 새벽2시40분께 외간남자와 정을통한 金貞任여인(35·麗水市忠武洞)을 順天市旅谷洞에서 붙잡아 임의동행형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데려가 관내 산수장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욕보였다는것。

金순경은 이보다 12일전인 12월7일 하오7시께 金여인의 남편 金모씨(38)로부터 『金여인이 가출한후 申모씨(32·구속중)와 정을 통하고있으니 이를 붙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9회에 걸쳐 현금9만원과 8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한편 麗水경찰서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17일자로 金순경을 파면조치 했다。

油槽船에 불
釜山、1명燒死 9명부상

【釜山=聯】18일밤10시40분께 釜山市西區多大浦앞 해상에 정박중이던 리베리아선적 2만톤급 유조선 코스탈·스피리트호(선장 코스타·50)의 유류탱크에서 폐유제거작업중 원인모를 불이나 탱크내에서 제거작업중이던 인부 임외동씨(50·西區多大洞380)가 불에타 숨지고 高태조씨(28)등 9명이 화상및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불은 폐유제거작업중 갑자기일어나 작업중이던 인부들은 배에 대어있던 청소선으로 안전 대피했다。

이배는 釜山항에 폐유제거작업을위해 입항 지난17일부터 모던석유소측 인부3백여명이 제거작업을 벌여왔다。

해경은 작업중 삽과 유류탱크가 마찰하면서 스파크가 발생,탱크안에 있던 가스에 인화 일어난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뉴·저팬호텔火災사망자에
2천만엔씩 일률 補償제시
遺族 "人命경시" 크게반발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화재로 32명의 사망자를 낸 호텔 뉴·저팬측은 19일 사망자들에게일률적으로2천만엔(약6천만원)씩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한국및 臺灣、영국、미국등의 희생자를 낸 뉴·저팬호텔의 요꼬이(橫井)사장은 사고후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같이적은 보상금을 제시하자 사고희생자의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보상금도 1인 4~5천만엔이보통인데 방화시설의 미비로많은 희생자를 낸 뉴·저팬호텔측의 2천만엔 제시는 人命경시의 생각에서 나온것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뉴·저팬호텔화재의 한국인 사망자는 란체스터 경영연수단 17명중 5명, 서울마키팅협회 訪日시찰단 17명중3명등 도합 8명이다。

붕괴사고 대일聯立 社長·총무부장令狀

【서울=聯】서울城北區 貞陵3洞 대일연립주택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서울城北경찰서는 19일 사고가 4동옆에있는 용량1백12톤짜리 물탱크의 아파트로 연결되는 25㎜파이프이음새에서 새어나온 물이 옹벽의 지반을 약화시켜 사고가 난것으로 밝혀내고 대일주택 사장 文厚錦씨(35·여·서울恩平區 碌磻洞76의43)와 총무부장 崔文奎씨(34·서울恩平區佛光洞 8의13)등 2명을 건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韓·美팩시밀리 오늘부터 開通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한미간에 직통 국제팩시밀리를개통, 20일 상오10시부터 업무를개시한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미국전역에 전보·텔렉스와는달리 어떤형태의 문자나 도면、설계서、수출입관계 제반서류、편지등을 손쉽게 보내고 받아볼수 있게됐다。

요금은 193㎜×276㎜ 1장당 7천원이며 접수는 서울국제전신전화국、문의는 (국)7478。

우리나라는 72년에 일본과 국제팩시밀리를 개통, 이번이 두번째가 된다。

高校生들 亂動
釜山、벌받은뒤

【釜山=聯】야간고교생 8명이 선생님으로부터 벌을받은데 앙심을품고 교실에서 난동을부려 수업중단사태를 빚었다。

18일하오8시30분께 釜山市東區凡一洞 D공업고등학교 야간부 2학년10반 교실에서 이반 李모(17)·黃모군(17)등 8명이 술에취해 몽둥이와 돌을들고 들어와 『수학담당 S교사(30)나오라』고 소리치면서 교실유리창을 닥치는대로 부수는등 20여분동안 난동을 부렸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 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당신의 운명을 말해드립니다
(손금 카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드림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당신께 꼭히 도움이 되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어느분이든 예외없이 충고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와 보세요! 초능력적인 힘을 보실것입니다.
●예약은 필요없읍니다.
PRIVATE AND CONFIDENTIAL READINGS
291 AUGUSTA AVE
921-0552 7일 오픈 9시~저녁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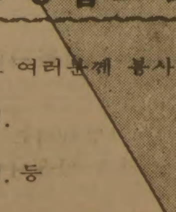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즈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토론토시
부동산세 개정
토론토시는 3년의 부동산세 개정안을 끝냈다. 부동산세 개정에대한 당신의 최종기록 사본을 위해 367-7341 또는 367-7039로 전화하거나 시청2층에있는 "시민정보센타"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회의는 3월18일(목)시청 회의실에서 오후8시 열린다. 당신은 회의에 참석하여 기록에 대해 얘기 할 수 있다.
시장 아트·이글톤
의장
부동산세 개정의 합동회의

◇旗門통과 여고1천m 활강에서 金淑鵬(경북여상)가 기문을 통과, 역주하고있다. 【龍平=朴泰弘기자】

國體스키 2분4초18 기록

【龍平=李喜洪기자】 金振海(단국대)는 19일 龍平스키장 실버라인 슬로프에서 열린 제63회동계전국체전스키대회 이틀째 회전경기에서 우승, 전날 활강 우승에 이어 남대부 2관왕에 올랐다.

1천8백m코스에서 벌어진 회전에서 金振海는 2분4초18을 기록했다. 작년 이 대회 알파인 3관왕을 차지했던 金은 20일 최종경기 대회전에서도 우승이 유력시되고있다.

강호 朴敏赫(강릉농공고)은 회전에서 파울을 범해 실격 당했다.

회전 고등부에서는 魚偶然(강릉상고)이 2분7초39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5cm가량의 눈이 내려 경기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제2일전적(각종목 1위)

◆회전

▲남일반(1천8백m)=李延吉(대관령축산부OB) 2분30초80 ▲남대부(〃)=金振海(단국대) 2분4초18 ▲남고부(〃)=魚偶然(강릉상) 2분7초39 ▲남중부(1천6백m)=鮮亨石(동북) 2분12초F

比오픈골프 崔上鎬 3位유지

【마닐라18日AP=聯】韓國의 崔上鎬는 18일 15만달러상금이 걸린 필리핀 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제1라운드에서 1언더·파71타를 기록, 臺灣의 許勝三과 등룡3위로 선두그룹에 나섰다.

심한 바람속에 거행된 이날경기에서 필리핀의 질·아바바(24)가 3언더·파69타, 스페인의 마누엘·칼레로(29)가 2언더·파70타로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첫날기록

①아바바(比) 69(34·35) ②칼레로(스페인) 70(34·36) ③崔上鎬(韓) 71(37·34) ③許勝三(中) 71(37·34)

88서울올림픽 施設확보 組織委 종목별 計劃밝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LOOC) 李源京사무총장은 18일 올림픽개최에 따른 시설준비등 1차시안을 발표하고 『오는86년 아시아게임 이전까지 모든 시설을 완전히 갖추어놓겠다』고 밝혔다. SLOOC는 88년하계올림픽대회서 채택된 23개 경기종목을 대상으로하여 각종 국내경기장시설을 점검한 결과 앞으로 요트·조정·체조·승마·사이클등 5개 경기장만 신설하면 무난히 대회를 치를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시설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설계획은별표참조】

◇올림픽종목별 경기장시설

종목	ISF 요구사항	경기장명	수용능력(명)	비고
육상	주경기장③ 마라톤코스 경보코스	서울종합운동장 서울~성남간도로 서울~성남간도로	100,000	건설중 보수 보수
조정	주경기장①	한강조정장	8,000	신설
농구	주경기장②	장충체육관 안양실내체육관	8,000 7,100	개수 계획추진중
복싱	주경기장①	서울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	12,000	개수
카누	주경기장①	한강조정장	8,000	겸용
사이클	주경기장② 벨로드롬 도로 170—200km	서울종합운동장 성남~김천간도로	6,000 3,000	신설 보수
펜싱	주경기장①	태릉펜싱경기장(스케이트장)	8,000	가설
축구	주경기장④	서울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서울운동장축구장 인천공설운동장 안양공설운동장	100,000 30,000 26,000 15,000	겸용 겸용 개수 추진중
체조	주경기장① 연습장①	태릉체조경기장 위체조경기장내설치	15,000	신설
역도	주경기장①	세종대학대양홀	3,200	개수
핸드볼	주경기장②	선인체육관 인천실내체육관	20,000 3,500	보수 보수
하키	주경기장④	수원공설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의정부공설운동장 효창운동장	20,000 15,000 12,000 13,700	개수 건설중 개수 개수
유도	주경기장①	성남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7,500	건설중
레슬링	주경기장①	서울종합운동장실내자전거경기장내	6,000	겸용
수영	주경기장②	서울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태릉국제수영장	4,500 2,740	보완 개수
근대5종	주경기장⑤	남서울대공원승마장 태릉사격장 서울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태릉골프장 태릉펜싱장	20,000 10,000 4,500 3,000 8,000	겸용 〃 〃 가설 겸용
승마	주경기장② 크로스칸트리	서울종합운동장메인스타디움 남서울대공원승마장(조마, 크로스칸트리등)	100,000 20,000	겸용 신설
사격	주경기장①	태릉국제사격장	10,000	보수
궁도	주경기장①	태릉궁도장	3,000	보수
배구	주경기장②	서울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서강대학체육관	20,000 3,000	완비 보수
요트	주경기장①	부산마리나		신설
탁구	주경기장②	수원실내체육관 경희대학수원분교체육관	5,500	계획추진중
테니스	주경기장②	서울운동장테니스장 덕성여대테니스코트	4,500	개수 가설
계	주경기장43	주경기장43	주경기장	신설(신규)5 계획추진중4 기존34

네루컵축구 한국、印과 비겨 苦戰끝에…2대2

【캘커타18日AP=聯】제1회 네루골드컵국제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은 18일저녁 홈팀인 印度와의 첫대전에서 페널티킥을 2번이나 놓쳐 2-2로 비기고 말았다.

한국은 전반13분 첫페널티킥을 얻었으나 崔淳鎬의 실축으로 득점기회를 놓친후 전반종료 4분전에 印度에 선제골을 뺏겨 1-0으로 리드당한채 전반전을끝냈다.

짧은 패스로 날카로운 공격을 펼친 한국은 후반들어 또다시 페널티킥에 실패한후 黃石根이 한 골을 얻어 동점을 이루었다.

84년LA올림픽 레이건 開會선언

【로잔(스위스)17日AP=聯】로널드·레이건 美國대통령이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개회선언을 수락했다고 환·안토니오·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7일 말했다.

大宇、결승 先着 노장孫城淳 신예金泰秀 활약

종합卓球 단체전

여자부 國家代表빠져 混戰 東亞建設·第一毛織B 함께 4승 韓一·서울信託銀도 3승의 好調

제35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이틀째 경기가 19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 남자단체전 준결승전에서 大宇重工業은 코치겸선수인 孫城淳과 왼손잡이 신예 金泰秀의 활약으로 강호 國定敎科書를 5-1로 완파하고 결승전에 선착했다. 大宇重工業은 20일 결승에서 第一合織-星武전 승자와 패권을 겨룬다.

예선B조에서 부전승의 행운을 안고 준결승에 진출한 大宇重工業은 9단식 5선승제로 진행된 國定敎科書와의 대결에서 코치를겸한 노장 孫城淳이 國定敎科書의 주장 申東炫을 첫단식에서 21-15, 21-14 스트레이트로 제압, 기세를 올렸으며 釜山錦城高출신의 왼손잡이초년생 金泰秀도 國定敎科書의 宋勳培를 21-18, 21-16으로, 강적 申東炫을 21-11, 11-21, 21-15로 격파, 大宇승리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大宇의 노장 池龍玉은 2차단식에서 國定敎科書의 鄭聖秀에 2-1로 역전패했으나 6차단식에서 범실이 잦은 宋勳培를 21-13, 21-8로 물리쳐 토틀 5-1의 승리를 결정지었다.

여자단체전예선 B조에서는 東亞建設과 第一毛織B팀이 나란히 4승을기록, 준준결승 문턱에 다가섰으며 A조에서는 第一毛織A팀과 韓一銀行A팀이 3승의 공동선두를 이루고 있다.

C조에서는 서울信託銀行A팀이 3승으로 단독선두에 나섰으며 D조에서는 釜山코카콜라A팀과 韓一銀行B팀이 3승의 공동선두를 달리고있다.

국가대표선수들의 불참으로 4년만에 여자부단체전패권탈환을 노리고있는 서울信託銀行A팀은 이날 서울女商출신의 신진 尹瓊美·朴末連의 활약으로 이날예선C조에서 釜山코카콜라B팀을 3-1로, 新一女中을 3-0으로 각각누르고 C조 1위로 쾌주하고있다.

東亞建設은 국가대표 黃男淑·安海淑·白良美와 전국가대표 辛庚淑등 주전들이모두 불참, 金泰淑·池男容등의 분투로 4연승을기록, 大韓航空A팀과 8강진출을 다투고 있다. 第一毛織역시 李壽子·金貞美등이 국가대표로 빠졌으나 金明熙·金銀熙의 A팀과 李美雨·金順粉의 B팀이 각각 예선A·B조의 선두를 고수·저력을 과시하고있다.

星武와 第一合織의 대전은 당초의 대진일정대로 大宇-國定敎科書전과 함께 이날하오1시30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방송중계시간에 맞추기위해 4시간이나 지연, 남자팀의 무더기 기권사태에이어 대회운영이 난맥상을 드러냈다.

선수強化委 구성 탁구대표 訓鍊에

대한탁구협회는 19일 국가

◇안정된 守備 여자 단체전서 李銀의 尹秀賢이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있다.

流星의 賦 <31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⑪

일가를 몰살하려고 원수가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집에선 끝없는 당파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당시의 조정이 꼭 그런 꼴이었다.

일본은 군비를 갖추고 바야흐로 한반도를 덮치려하는 그 순간에도 당쟁(黨爭)은 치열했던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양사(兩司)의 동인(東人)들은 전 좌의정(前左議政) 송강 정철(松江 鄭澈)의 동지(同志)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명의 인물들을 파직시킬것을 청하니 선조는 이를 재가했다. 요즘의 표현을 빌면 쿠데타에 의한 일대숙청(一大肅淸)으로 된다.

그런데 정철의 죄상(罪相)이 뭐냐고 하면 이것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

당시 선조에겐 정궁(正宮)에선 혈육이 없었고 비빈들 몸에서 낳은 아들이 13명, 딸이 열명 있었다. 그런 까닭에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선 빨리 세자(世子)를 책봉하여 후사(後嗣)문제를 에워싼 소동의 근본을 미리 없애야 했다. 유성룡과 의논한 결과 정철이 경연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정궁에 아들이 없으니 왕자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분으로 세자에 책봉함이 온당하다』

는 의견이었다. 나이 순서대로 세자에 책봉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히 임해군(臨海君)이 된다. 임해군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읜 왕자였다.

정철의 이러한 제의는 인빈김씨(仁嬪金氏)의 비위를 거슬렀다. 선조의 총애를 한몸에 지닌 인빈은 그무렵 신성군(信城君)이란 아들을 낳고 있는 터라 그 아들로 하여금 세자가 되게 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럴 때의 정철의 제안이지라, 인빈은 오빠인 김공량(金公諒)이 영의정 이산해와 친한 것을 이용하여 정철을 배척할 계략을 꾸몄다. 인빈은 선조에게 울소했다.

『정철이 우리 모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조는 이미 이산해로부터 그런뜻의 말을 듣고 있었던 터라 대노하여 정철을 좌의정의 직에서 추방하고 드디어 강계(江界)로 유배했다.

이때 부제학 이성중(副提學 李誠中) 대사간 이해수(大司諫 李海壽) 등은

『정철의 제안은 옳고 정철의 의견만이 아니라 우리들과 의논한 뒤에 합의한 사안입니다』

하고 아뢰었으나 선조는 듣지 않고 이들의 직급(職級)을 낮추어 버렸다.

요컨대 정철의 죄란 이런 것이었는데 동인들은 물실호기(勿失好機)라 하여 대대적인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다.

이미 희생된 자들 가운데는 쟁쟁한 명사들이 있다. 병조판서 황정욱, 그 아들 우승지 황혁, 좌승지 유근, 호조판서 윤두수, 황해감사 이산보, 대사헌 최황 등 도합 26명이다.

정여립의 사건으로 퇴세(頹勢)에 몰렸던 동인(東人)들이 세자책봉문제를 계기로 다시 득세하여 서인(西人)들을 몰아치게 했다.

이무렵 이영이 홍제남을 위해 어영(御營)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으나 사양하고, 일본에 동행한 황진이 막료(幕僚)로서 초청했으나 역시 사양했다. 그 이유인즉 다음과 같았다.

『아버지의 연세가 이미 높으매 잠차 혼도할 겨를이 없을까 걱정되옵니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 혼정신성에 전일할까 하옵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㉘

『목아, 나야 나, 나 몰라 보겠어』

청년이 답답한듯 제가슴을 쳤다. 키만 훌쩍 자랐다기 보다는 체격이 당당한 청년이 되어 달려왔기 때문인지 목이 메었다. 반가움 때문인지 씨근거리며 어깨로 숨을 쉬는게 씩씩해 보였고, 혈색 좋은 불룩한 얼굴은 된 일이 잘돼갈 때의 남자들 특유의 과장된 희망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두툼한 입술이 실룩실룩하니까 고르지못한 뻐드렁니가 드러났다. 목이도 덩달아 조금 웃었다.

『일확이 오빠 웬일야?』

『짜식 그래도 이 오빠를 알아보긴 알아보는구나』

『오빠 때이 컸네』

『너야말로』

일확이는「오누이의 집」이 없어지기 몇년전에 취직해서 나간 역시 고아였다. 아마「오누이 집」을 거쳐간 고아중에선 제일 연장자였고 그나름으로 맏형 노릇을 톡톡히 했다. 고아로 있을땐 힘으로 아이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기강을 바로잡았고 사회에 나간후에도 설이나 추석 명절엔 잊지않고 선물꾸러미를 들고 원장부모와 아우들을 찾아보았었다.

『안됐다, 오빠두…』

목이가 진짜 시무룩하게 말했다.

『왜?』

『오빠 지금 세배 오는거지? 오누이의 집이 없어진 것도 모르구』

『오누이의 집이 없어지다니?』

『오빤 정말 암것도 모르는구나. 벌써 없어진지가 언젠데?』

『오누이의 집이 없어졌으면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나도 오빠처럼 취직해서 나갔다가 세배온 거야. 그랬더니 고아원만 없어진게 아니라 원장 아버지 어머니까지 안계시잖아? 이사 가셨나봐, 빈집이야. 무서워서 혼났어』

목이는 아직도 긴가민가한 얼굴로 서있는 일확이에게 그간에 경위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했다. 두사람은 어느 틈에 다시「오누이의 집」을 향해 나란히 걸어올라가고 있었다.

『그럴줄 알았어』

『뭘』

『새로운 고아를 안받는걸 보고 쉬 없어질줄 알았어. 그렇지만 막상 없어졌다니까 섭섭하다』

『나도』

『일년에 한번 세배 올데도 없어져버렸구나』

『정말 너무 했어. 감쪽같이 이사까지 가버렸게 뭐람』

『세배도 세배지만 한솥에 밥먹고 자란 우리끼리라도 일년에 한번쯤은 모여서 얼굴을 봐야하는 건데』

『글쎄말야. 우리한테 그런 자리도 내주기가 싫어서 살짝 이사를 가버린 거야. 친부모가 아니니까 별수 없어』

『얘 좀봐. 우리의 친부모는 우리를 버렸어. 그래서 우린 고아가 된거야. 그런 우리를 주워다 키워서 제각기 독립시켜 내보내고 더 늙기전에 당신들 일을 찾아간 그 분들을 그런 식으로 원망하면 되겠니?』

일확이가 제법 의젓하게 나무랐다.

『흥, 오빠네 부모는 오빠를 내버렸을지 몰라도 우리 부모는 나를 절대로 안 버렸어. 난 난리통에 길을 잃고 고아가 된거야. 내 잘못이지 우리 부모 잘못은 없어. 난 딴 고아하고 달란』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12: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3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봉규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30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목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3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 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성령교회	김대선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여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수 있어야함.
☎ : 535-2798 233-9454
781-9581(저녁)

경험있는 주말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 : 923-4354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 매니저 또는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험있는 캐쉬어구함
제랄드×콕스웰
☎ : 465-6885 미스타 유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매주 일요일 FULL TIME 가게 헬퍼구함
킹스톤×빅토리아 파크
☎ : 699-9909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AVE.
☎ : 656-3020

식자기술 배우실분 구합니다.
☎ : 533-2364(미스. 박)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Full Time)
☎531-2689

입주하셔서 두어린아이(2년, 1년) 보아주실분 구함. 직장부부.
☎266-0801, 751-3189

남자친구가 필요하십니까?
40세 미만의 혼자 사는 여성으로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2-5509

구 직

가게등 각종사업체 운영해드림. 수퍼마켓, 무역회사 부동산업 소유 운영했음. 캐나다에서 대학졸업 신원확실. 성실. 입주가능 ☎449-1913(오전11~2시)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George town
ㅇ작년도 매상 $270,000
ㅇ로타리오 년 $8,000(순이익)
ㅇ공중전화 년 $600
좋은 리스. 렌트 600불
☎ 1-877-6463 Mr. 김 883-4550 김영창

성업중인 스토아 급매합니다
아스킹 $79,000+스탁
☎ : 633-7222 다운스뷰 에어리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WHITBY북쪽지역의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1-655-3831, 또는 서신연락처
P. O. BOX 101 BROOKLIN ONT. LOB 1CO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A. E. LEPAGE LTD.
☎ : 741-9170 미세스 우

①카페테리아(테이크 아웃 비지네스),
주5일간 오픈, 주매상 : $6,000
가격 : $230,000, 리스 : 12년

②SMOKE & GIFT SHOP.(전망좋고 시간짧은 사무실 빌딩 안)
주5일간 오픈, 가격 $75,000
리스 : 6년+5년
여자 혼자서도 운영 가능

③SUBWAY통로에 위치한 COFFEE, NUTS, CANDY SHOP
가격 : $42,000, 월매상 : $7,000~$9,000
리스 : 3년+5년+5년

④그로서리 스토아(SHOPPING CENTRE내)
년매상 : $840,000, 가격 : $330,000
리스 : 1990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격 : $40,000
☎ : 1-579-4507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아파트 안에(500여호)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 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1-519-453-0420

기막힌 투자전망 좋은리스
햄버거 샵과 도너츠 샵(오샤와지역)
☎ : (1)~668-5868(B), (1)~668-2484(R)
Mr. Charles B. Rycraft
D. W. Mcquay Realter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세탁물에다는 표를팝니다(1~8번)
노란색(Dry & Laundry용)
오후4시~8시반 ☎ : 742-2092(Mr. Kang)

그로서리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 : 844-6741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20,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이익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위치 : Queen St. E.
아스킹 : $129,000+스탁
9.5% First Mortgage, 1994
☎ : 461-0225(Peter Tong)
Atwood Hou Real Estate LTD.

하우스 렌트

가구달린 1 Bedroom 3개월간(3. 4. 5) 세놓음
DON MILL지역 월 $300
☎ : 225-2077

DUPONT +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관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번역및통역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춘탁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세환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봉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황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진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상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수웅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라운수

운전학교

오행근 운전학교
423-3035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달원
☎ :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세호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영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보광한약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남집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호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춘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경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 : 1445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 : 273-7300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영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기 타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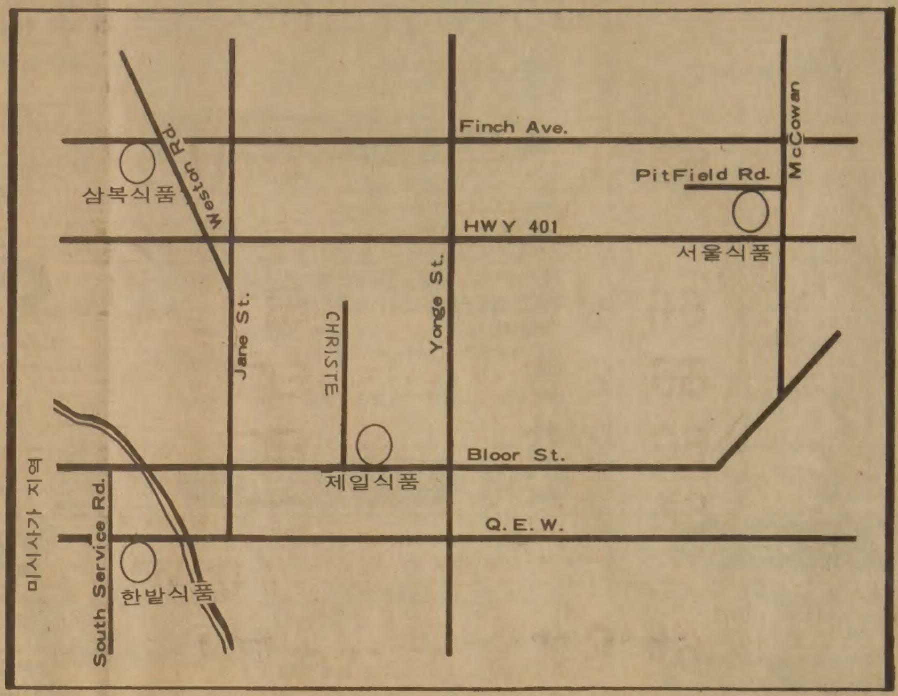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 598-4608
●한인회 : 755-9288
●노년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752-7771
●YMCA : 536-1166

토론토의화제

✡ 최고인기 ✡

D. Y. 가주미쌀 $17.94



※D. Y를 확인하십시요.

D. Y. 맛새우젖----------1LB---------- $1.99
새조개 깐것-------------1병------------ $3.49
(뱅쿠버에서 새로 입하)
D. Y. 참기름-------------1LB---------- $7.99
D. Y. 당면----------------1LB---------- $2.59
D. Y. 막국수-------------5LB---------- $3.99
D. Y. 우동국수----------5LB---------- $3.99
(풀어지지 않고 쫄깃쫄깃한 국수)
D. Y. 고추가루----------1LB---------- $1.99

※그외에도 스페샬 품목이 많습니다.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밭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291—8317 367 PITFIELD RD.

●D. Y. Import Co. 749—0579

2ND CLASS MAIL NO. 5248